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579.04 (+233.51)		858.91 (+1.07)
	금리 (미국 9년)		환율 (한·달러)
	3.791 (-0.017)		1418.25 (+2.25)

“시총기준 증시 퇴출 유예·재검토 해달라”

국무총리 만난 중소기업계

범 중소기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하다 국무총리가 된 한성숙 총리에게 일정 시기총액 미만 상장사를 증시에서 퇴출하겠다는 정부안을 유예·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기간 준수,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이중 심사구조 개편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도 더욱 원활하게 해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성숙 총리를 초청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중소·벤처 규제혁신 대토론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실적·재무 상관없이 상폐 위기
변동성 감안, 규제책 마련해야”

이날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포함해 중소·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장 등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 총리 외에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등 10개 부처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폐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선 옥석을 가려 필요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30거래일 연속 기준 시총 하회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 시총 하회시 상폐한다는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0억원 미만’은 내년 1월1일부터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증시 퇴출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1주당 1000원 미만의 소위 ‘동전주’에 대한 상폐 요건도 신설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기총액 200억원 미만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감안,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전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300억 미만’ 상향 조치 역시 적용 시기를 1년 뒤로 미루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시기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은 149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흑자기업은 45개사(30.2%), 상장 5년 미만의 기술특례기업은 26개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동전주는 155개사로 집계됐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올해 주식시장은 역대 최고의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 이같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시기총액 및 동전주 등 정량기준을 일률 적용하면 정상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게 된다”면서 “관련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은 기업 신뢰도 저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인재이탈 등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코스닥시장 진입 및 퇴출 관련 규제 완화’ 요구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코스닥협회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총리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창업 벤처를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곧 신설할 예정”이라며 “(신설 위원회는)신산업, 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부딪칠 때 관련 제도를 리스업하는 창업벤처 전담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 신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자리 못찾고 빚은 늘고… 고통받는 2030

고령·청년층 부의 양극화 심화
올해 전체 취업자 11만명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 5년여 만에 최대폭 증가

장기화 추세의 청년층 고용 부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층과 젊은 층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세대 간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고, 최근 5년 사이 소득 1분위(최저) 가구 중 20·30대 비중이 급증했다. 12일 공개된 청년 실업률 수치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5년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청년층 취업자수 역시 45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다른 연령대의 일자리 상황과 비교하

면, 유독 이들 층에서 극심한 부진이 보고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5월 4만명 감소했으나 6월에 6만3000명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조금 더 늘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1000명 줄어들며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청년층 고용률의 경우, 44.2%로 1년 전 대비 1.6%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27개월째 내림세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1.3%p나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1월(1.8%p) 이후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수치는, 전 연령대의 실업률이 2.6%로 소폭(0.2%p) 오른 것과 대비

된다.

데이터처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은 “고용 문화가 과거 공채 중심에서 수시·경력직 채용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고용 상황·여건들이 과거에 비해 조금 녹록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11일 펴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에 따르면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 간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로 떨어졌다가 2025년에 다시 0.625로 가파르게 뛰었다. 이에, 소득 축적만으로는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 앞서 선박용 SMR 탑재 컨테이너선 모형 관람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SMR 등 7대 첨단산업,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첨단산업과 관련해 “글로벌 기술 경쟁 파고 앞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아발로 경제력이고,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며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은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은)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대전환 시대”라고 했다. 7대 첨단산업은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으로 미래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어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젠가 한 번 앞서는 첨단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첨단 기술의 공통적 특징은 기술 교체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그리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로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한한 기회 누리는 선도자가 될 건지 또는 도태 위험에 노출되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7대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차세대 경제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 혁신의 원동력이라면서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 씨앗들이 미래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참석자들을 향해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與 선관위 ‘불법 전화방·황명선 金 선거운동 의혹’ 신고 건 모두 기각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가 피해 입증해야, 국가의 2차 가해” /사진 뉴시스

▲산업차관 “호남 반도체 송전망 확보 가능…패스트트랙 추진”
▲조국혁신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형연 인준…“사법·법제 최고 전문가”

▲국힘 조강특위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 방침, 최고위에 보고 후 승인받기로”
▲친명계 강득구 “호남 미래-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전대 투표를”

삼전·하이닉스 ‘호황의 역설’… 고객사 이탈에 노사 갈등까지

엔비디아 HBM 사양 하향 검토
애플 등 중국산 메모리 적용 확대
공급난에도 가격 주도권 유지 전망

양사 노조 공동 대응 가능성 부상
삼성전자, 노조 자사주 보상 요구
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확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인파으로 흔들리고 있다.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자 고객사는 사양을 낮추거나 중국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양사 노조가 손을 잡으면서 개별 기업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업계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루빈 울트라’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최고 사양인 HBM4E 12단을 쓸 계획이었으나 올 3분기 들어 HBM4E 8단과 이전 세대인 HBM4까지 후보에 올랐다. 8단을 적용하면 그래픽처리장치(GPU) 한 개당 메모리 용량이 줄어 국내 업체 공급 물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체 공급처 찾는 글로벌 고객사



생성형 AI가 형성한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 고객사 공급망 다변화와 노사 갈등 이미지.

배경에는 공급 부족이 있다. 트렌드포스는 2027년까지 D램 공급이 빠듯한 데다 HBM4E 검증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AI 칩 업체들이 사양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업체에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HBM4E 12단은 검증이 까다롭고 수율(정상품 비율) 확보도 쉽지 않아 양산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최신 제품이 밀리는 만큼 기존 HBM4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3분기 HBM4 매출이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사들은 아예 공급처를 바꾸는 방안까지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등에 중국 CXMT 메모리를 시험 적용하고 있다. HP와 에이스는 이미 미국 외 지역 판매 제품에 CXMT 메모리를 탑재했다.

다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CXMT는 올해 생산분을 대부분 소진해 신규 해외 고객을 받을 여력이 크지 않다. 제시 가격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 트렌드포스는 2027년 HBM 출

하량이 50~60% 늘어도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워 공급사가 가격 결정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성과급 갈등에 양사 노조 연대까지

호황으로 이익이 늘어나면서 내부에서는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6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쟁점은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방식이다. 사측은 자사주 60~70% 지급과 2~4년 매도 제한, 적자 시 임금 조정을 제시했다. 첨단 공장 건설에 수습조원이 드는 만큼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발은 새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다.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가 이날 정식 출범한다. 조합원은 1250명을 넘어섰고 전체 구성원 3만5000명의 절반인 1만8000명을 목표로 내걸었다.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상 첫 분기 적자를 낸 DX부문 직원 중심의 동행노조는 1인당 자사주 1000주를 요구하며 오는 21일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연다.

문제는 양사 노조가 공동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회사별로 진행

되던 성과급 갈등이 반도체 업계 전반의 사안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 통합노조는 지난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에 자문을 요청했다. 사측이 자사주 지급과 적자 시 임금 조정을 제시하자 앞서 입단협을 마무리한 삼성전자 노조에 도움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노조 모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라는 점도 공통분모다.

특히 두 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통합노조는 초기업노조의 행보와 비슷하게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를 지향하고 있다”며 “지난해 SK하이닉스 청주 노조에서도 초기업노조가 도움을 받은 바 있어 현재 큰 이슈들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해에도 11차 본교섭 끝에 9월 5일에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올해는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임금 조정까지 쟁점이 늘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금융공기업 ‘고용 양극화’… 정규직 1명 늘 때 비정규직 2명 늘려

7곳 상반기 전체 인원 314명 확대
기업은행 기간제·하도급 132명 순증
최근 5년 일반직 전환 실적 ‘0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이 올해 ‘정규직’ 직원을 1명 늘릴 때 ‘비정규직’(계약직 및 하도급 직원)을 2명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에서 정규직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비정규직 위주로 직원을 늘렸다. 특히 일부 기관은 피고용자에게 불리한 ‘12개월 미만’ 계약도 운영하면서, ‘고용 안정’을 선도해야 할 금융공기업이 고용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 늘어나는 비정규직 고용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7개 금융공공기관(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캠코·주택금융공사)은 올해 초부터 지난 2분기 말까지 총 314명의 직원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임원·정직원·무기계약직)이 106명 늘었고,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하도급)은



청년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스

행·캠코·주택금융공사)은 올해 초부터 지난 2분기 말까지 총 314명의 직원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임원·정직원·무기계약직)이 106명 늘었고,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하도급)은

208명 늘었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이 정규직 직원을 62명 줄이는 동안 비정규직 직원을 132명 늘려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했고, 같은 기간 신보가 41명, 캄코가 32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늘려 뒤를 이었다. 고용기간별로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1년 이상’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 5년 내에 7개 금융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건수는 ‘0건’이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에는 연구 용역이나 법률 자문, IT 등 비금융적 업무나 전문성 높은 업무도 포함된다”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반드시 처우가 나쁜 것은 아니고, 각 공공기관마다 고용 가능한 직원 수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정규직 직원을 쉽게 늘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퇴직금’ 못받는 비정규직도

각 금융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계약직 및 하도급 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기관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에서 소외되는 ‘1년 미만’의 계약직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이 ‘고용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알리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2분기 말 기준 전체 계약직 가운데 19.1%를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고용했고, 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체 계약직의 15.2%를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육아휴직 대체 고용을 제외하고도 고용기간 1년 미만의 계약직 일 자리를 일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고용 비중이 큰 주금공과 서금원의 공고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 직원들은 대부분 고객 상담·상품 안내 등 창구 업무에 투입됐다. 일반

직원과 유사한 업무인데도, 전문성이 높은 정규직 직원 대신 고용비용이 저렴한 계약직 직원을 투입한 셈이다. 특히 서금원은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운영하면서도 재계약 불가를 고용 조건에 명시했다.

서금원은 최근 채용한 단기 계약직 직원들은 수요가 많은 상품의 취급을 위해 한 시적으로 고용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는 투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단기 계약직 대부분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취급 및 상담에만 투입된다. 수요가 특히 많은 상품이라 해당 상품의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상품의 취급을 포함한 일반적인 창구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직원들이 맡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반도체 산단 전력망 속도… 호남·용인에 20GW 이상 공급

호남권 2029년부터 6GW 이상 공급
용인산단 2041년까지 14GW 이상 확충
전력망 비용분담·인허가 지원 구체화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전력 수요기업이 손을 맞잡고 적기 전력공급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2040년대까지 총 2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적기 공급하고, 인허가와 비용 부담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

식’을 열고 총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 호남권 산단에 6GW+ 공급… 민간 부담 일부 국가재정 지원

우선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는 총 6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반도체 산단 가동 시점에 맞춰 2단계로 나누어 전력을 공급한다. 오는 2029년부터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하는 전력망과 산단 내 변전소 1곳을 신설해 약 3GW의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향후 세부 기술 검토를 거쳐 2단계로 누적 6GW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1단계 전력공급설비 구축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을 따라 분담하되, 민간 분담금 일부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허가권을 가진 전남광주통합특례시도 전력망 구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다.

◆ 용인 산단 14GW+ 확충… 노후 석탄 대체 LNG 발전·동해안 선로 조기 구축
2041년까지 14GW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전력공급 협약을 개정하고 2단계 공급 협약을 신규 체결했다.

용인 국가산단(6개 펌)은 2032년까지 산단 인근 단거리 선로 및 노후 석탄발전을 대체할 산단 내 1GW 규모 LNG 발전소 3기를 세워 초기 수요에 대응한다. 이후 2035년까지 기존 선로 용량 증대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해안 및 중부권 발전력 공급선로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초기 전력 공급이 시작된 용인 일반산단은 신안성·동용인 변전소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2031~2032년까지 산단 인근 선로와 동해안 공급선로를 조기 구축해 전력망을 완성한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관계 기관장들은 신속한 전력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신속한 전력 공급”이라며 “정부·기업·지역이 한 팀이 돼

행정절차를 과격적으로 단축하고, 신규 산단 건설에 맞춰 전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례시장 역시 “특별시는 전력망 구축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기반시설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한 팀이 돼 전남광주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국가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적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핵심사업 역량 집중... ‘합병·매각·상폐’ 식품사 생존공식으로

확장 대신 슬림하게

〈中〉 고강도 체질 개선

CJ제일제당, ‘CJ푸드앤케어’ 매각 점유율 싸움보다 미래성장동력 집중 신세계푸드, 이마트 지배구조 단순화 3대 핵심 부문으로 사업구조 재편 매일유업, ‘매일헬스뉴트리션’ 합병 비용 효율화에 ‘셀렉스’ 실적 개선

경기 침체 장기화와 재무 부담 속에서 주요 식품사들은 비주력 사업과 자산을 과감히 털어내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고강도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식품과 바이오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지기 위해 전방위적인 자산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고 있는 CJ제일제당이 대표적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사료·축산 자회사인 ‘CJ푸드앤케어’ 매각을 완료했으며, 최근 전분당 사업 매각을 위해 자문사를 선정하고 잠재 인수 후보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방증한다.

매각 규모는 3000억원 인파으로 추산된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해 전분과 물엿·포도당·과당 등 감미료를 생산하는 B2B(기업간거래) 소재사업이다.



지난 7월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만두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전분당 사업이 매각 대상인 이유는 CJ제일제당의 핵심 사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옥수수를 대규모로 가공해야 하는 전분당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의 성격을 띤다. 설비 가동률과 생산 물량을 끌어올려야만 인건비,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의 고정비를 분산시켜 원가 경쟁력을 쫓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시장점유율이 곧 수익성과 직결된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국내 전분당 B2B 시장에서 4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1위 사업자에 비해 생산 및 유통 규모가 열세여서 원재료를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크다. 막대한 추가 자금을 투입해 점유

율 싸움에 나서기보다는, 사업을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시키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인천3공장·충남논산3공장 등 비핵심 부동산 매각도 병행되고 있다.

고강도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실적 악화와 차입금 부담이 자리한다.

CJ제일제당(CJ대한통문 제외)의 올해 2분기 매출은 4조19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619억원으로 18.4% 감소했다. 연결 기준 총차입금은 지난해 말 9조8338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2조4476억원으로 증가했다.

CJ제일제당은 성장이 제한적인 국내 소재 사업과 유류 자산을 단계적으로 정

리해 확보한 자원을 차입금 상환과 글로벌 K푸드 생산기지 확대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흐름은 유통·식음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완전자회사 편입과 자진 상장폐지를 단행하며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승부수를 던졌다.

상장 유지에 따른 비용과 실적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지난해 연 매출 2500억원 규모의 단체급식 사업을 과감히 매각해 1154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수익성 정체 국면을 벗어난 신세계푸드는 이제 베이커리와 식자재유통, 프랜차이즈의 3대 핵심 부문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인천 신규 공장 착공과 소지본 창

업 모델 확장을 통해 본업 경쟁력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직을 잘게 쪼개던 과거와 달리, 흩어졌던 조직을 다시 본사 품으로 불러 모아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매일유업은 헬스앤뉴트리션 판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세웠던 자회사 ‘매일헬스뉴트리션’을 약 4년 7개월 만에 본사 직속 체제로 흡수합병했다. 운영상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인은 사라졌지만 대표 성인 영양식 브랜드 ‘셀렉스’는 혈당 관리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SNS 마케팅을 전개하며 오히려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1분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8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4.6% 증가했다. 매출 역시 469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 신장했다. 발표를 앞둔 2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식품사들이 자회사 합병, 사업부 매각, 자진 상장폐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살을 빼는 것은 쪼개기로 덩치를 키우던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고정비를 걷어내고 알짜배기 핵심 역량만 남기는 ‘합병·매각·상장폐지’는 이제 식품업계의 거스를 수 없는 생존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특별한 충격 없으면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유상대 한은 부총재 기자회견담화
“환율, 금리결정 중요 요소 아냐”
근원물가 상승률 2.6%으로 올라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환율 안정이 금융통화위원회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지만 목표치를 웃도는 근원물가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한 추가 인상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담회에서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이클에서 추가 인상이 뒤이을 것이고, 그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율 하락만으로 통화 긴축 필요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게 유부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환율 하락이 “한은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약간의 여유는 주지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 기준 1415.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던 지난달 2일 종가(1555.8원)와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139.9원, 약 9.0%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10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금통위의 공식 입장 역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으로, 금통위원 7명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

금통위는 당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적어도 공식 문구상 7월 인상을 일회성 조정으로 규정하지 않은 셈이다.

물가 지표에서도 추가 긴축의 근거는 남아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6월 3.2%보다 낮아졌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2.5%에서 2.6%로 높아졌다.

겉으로 드러난 물가 상승 폭은 줄었지만 수요와 밀접한 기초적 물가 압력은 오히려 강해진 것이다.

경기 흐름도 추가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전 분기 대비 3.6% 늘었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임금과 내수로 확산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오는 27일 금통위에서 곧바로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6만 8000명 감소하며 25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도 19만 1000명 줄어 45개월째 감소했다. 전체 성장세는 개선됐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모든 산업과 연령층으로 확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음 금통위는 오는 27일 열린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유부총재는 오는 20일 임기를 마쳐 이번 금리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발언을 연속 인상의 공식 예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7월 인상으로 긴축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한은 내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부총재는 향후 인상 횟수를 미리 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성장과 물가가 어느 정도 경로를 그릴 건지다”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총

서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승인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회에

/뉴시스

소득보전 중심 재분배 ‘한계’... 새 정책 필요

» 1면 ‘청년 실업률 ‘심각’...’서 계속

특히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순자산과 소득 모두 1분위인 가구 가운데 청년층(20~30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크게 늘었다.

가계의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상황에서,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새로운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조세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한 탓에, 많은 청년들이 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빚을 떠안고 금융사기에도 노출되는 사례까지 빈번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신용거래 등을 이용해 자본시장 투자에도 무리하게 뛰어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도 고심이 깊다. 우선 유관 부처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물류 혁신으로 국내 유통 판 흔들고, AI로 글로벌 ‘정조준’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서 대만 수출행 비행기에 태울 로켓직구 상품들을 출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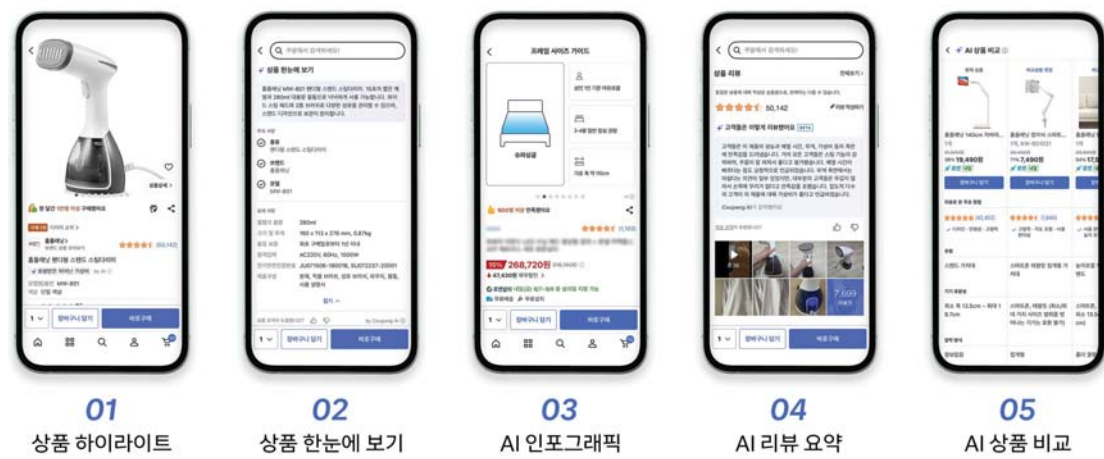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라이언 브라운(Ryan Brown) EHS(환경·안전·보건) 부문 대표이사가 로봇을 시운전하고 있다.



쿠팡이 '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도약하고 있다.

쿠팡, AI로 쇼핑 경험 대폭 개선



쿠팡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탐색부터 비교, 구매 결정에 이르는 고객 쇼핑 경험(CX). 단순한 텍스트 나열이 아닌 챗봇 검색을 넘어, 고객이 묻기 전에 인공지능(AI)이 먼저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쇼핑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재설계했다.

/쿠팡

31 쿠팡

coupang

온라인 유통의 변방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판도를 뒤흔든 쿠팡이 단순한 이커머스 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의 글로벌 첨단 기술기업으로 대전환을 일궈내고 있다.

전통 오프라인 유통 공룡들을 제치고 국내 1위 자리를 공고히 한 데 이어, 대만 등 해외 시장 공략과 고도화된 물류 자동화 기술을 앞세워 '아시아의 아마존'을 향한 도약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쿠팡의 독주 배경에는 유통 업계의 오랜 불문율이었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공식을 깨트린 물류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상품 구색,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쿠팡이 쏟아부은 자금은 천문학적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누적 투자 활동 현금 유출액만 6조 6000억원을 넘어서며, 여기에 3년간 약 3조원을 추가 투입해 전국의 100% '루세권(로켓배송 가능 지역)'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규모 적자를 무릅쓴 수조 원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가 오늘날 경쟁사들의 진입을 막는 독보적인 진입장벽이자 든든한 방어막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전폭적인 투자의 기틀에는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리더십과 글로벌 자본의 유치가 결정적이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로부터 유치한 30억 달러 등 해외 투자금은 초기의 막대한 적자 고비를 견뎌낼 버팀목이 됐다. 나아가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택하며 조단위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하는 동시에, 차등의결권을 확보해 장기적 비전에 기반한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커머스서 AI·첨단 물류기업으로 진화
물류·배송 자회사 직고용 인력 9만명 돌파

무료 반품에 쿠팡이츠 등 결합해 고객 폭인
파페치 인수·알릭스 출시로 명품분야 진출
AI 수요예측·물류 로봇 등 배송 경쟁력 강화

물류 투자 유지... 대만·日 등 해외사업 확대
내년 중반까지 마진 구조 안정적 회복 목표

오늘날 쿠팡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IT와 AI 기술력이다. 상품 기획자(MD) 중심의 전통적 유통 방식에서 탈피해, 전체 직원 중 2500여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발 인력이 데이터 기반의 발주 자동화 및 물류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글로벌 특허 보유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25년 기준 3900여 건으로 40배 이상 급증했으며, 메타·알파벳·아마존 등과 함께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축구장 46개 규모의 대구 풀필먼트 센터(대구 FC)는 무인 운반 로봇(AGV)과 소팅봇, AI 재고관리 시스템이 집약된 첨단 스마트 물류의 대표적 결실로 꼽힌다. AI와 머신러닝이 수천만 건의 수요를 사전 예측해 당일·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배송차량의 적재 위치부터 최적 경로까지 도출해 내는 구조다.

소비자를 자사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록인(Lock-in)' 전략 역시 완벽히 들어맞았다.

월정액을 내면 무료 배송·반품을 제공하는 '와우 멤버십'은 쿠팡이츠 배달비 무료, 쿠팡플레이 무료 시청 혜택 등 복합적인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더하며 활성 고객 수를 2300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멤버십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편의성과 혜택을 바탕으로 높은 고객 충성도를 입증해 내며 안



김범석 쿠팡 창업자.

/뉴시스

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다졌다.

국내 시장을 평정한 쿠팡의 시선은 이제 해외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형 로켓배송 모델을 그대로 이식한 대만 시장에서는 대형 물류 인프라를 연이어 확충하며 세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플레이백'의 이식 가능성을 입증했다. 글로벌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파페치(Farfetch)를 인수해 단기간 내 흑자 전환을 이끌어내고, 자체 명품 플랫폼 알릭스(R.LUX)를 론칭하는 등 럭셔리 커머스 분야로도 영토를 넓히는 중이다.

쿠팡의 고속 성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상생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쿠팡과 물류·배송 자회사의 직고용 인력은 9만 명을 돌파해 국내 고용 2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기술 고도화가 해고가 아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공존 모델을 완성했다.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완성한 AI 중심의 초격차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쿠팡은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기존 유통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아시아 시장을 호령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앞으로 쿠팡이 헤쳐나가야 할 길도 험난하다. 눈부신 외형 성장과 기술 혁신의 뒤편에서 지난해부터 대형 악재가 잇따르며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쿠팡Inc의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7억 9800만 달러(약 1조 1895억원)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2분기 영업손실만 8350억원에 달해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따른 일시적 고객 이탈과 고정비 부담 증가가 실적을 크게 압박한 데다, 규제 당국이 부과한 4억 1000만 달러(약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 추산액이 판관비에 반영된 점이 결정적 타격을 줬다. 불과 지난 2년간 거둬들인 합산 영업이익을 단 한 분기 만에 대부분 반납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재무 건전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쿠팡은 이러한 미증유의 위기를 물류 수용 능력을 유지한 채 신사업과 AI 기술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범석 의장은 고객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물류 투자 축소를 거부하는 대신, 대만 시장의 새벽배송 정식 도입, 일본 온다맨드 배달 서비스 '로켓나우'와 쿠팡이츠의 결합, 비식품 분야 배달 서비스 개시 등 공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다.

또한 15년간 축적한 물류 네트워크와 빅데이터에 AI를 본격 결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와우 멤버십 회원 수와 고객 지출액의 반등을 바탕으로 2027년 중반까지 마진 구조를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잇따른 악재와 수조 원대 영업적자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쿠팡이다시 한번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유통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OPENHOPE

올원모임통장

모인다는 건
함께 희망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
열어보세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희망 가득 NH올원모임통장



희망을 키워주는
최대 2.5% 금리
[*연/세전, 일별 잔액 3백만 원까지 적용]

0원
응원은 조건 없이
금융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 수수료 및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

손쉽게 함께하는
모임원 간편 초대

모임 관리를 편하게
회비 납부 현황판

[NH올원모임통장 유의사항] ■ 가입대상: 개인 ■ 가입방법: 영업점, 비대면(NH농협뱅크) ■ 기본이자율: 0.1%(26.04.07. 기준, 연/세전) ■ 우대이자율: 최고 2.4%(기본이자율 포함 시 최고 2.5% 연/세전, 일별 잔액 3백만 원까지 적용) ① NH올원모임서비스에 모임개좌 등록 및 해당 모임에 모임원 2명 이상 유지: 1.9%p ② ①번 조건 충족 및 결산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전전월 2개월 간 해당 계좌에 2건 이상 입금 건이 있는 경우: 0.5%p ■ 이자 지급 시기: 매월의 이자를 계산하여 3.6.9.12월 넷째 토요일에 계산 후 다음날 지급 ■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수수료(인터넷/스마트뱅킹)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NH농협은행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E행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농·축협 기기 제외) * 가입기간 동안 이 통장으로 거래 시 매월 조건 없이 제공 ■ 유의사항: 이 상품을 NH올원모임서비스 모임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예금주(모임주) 본인 명의 계좌이므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의무사항은 모임주에게 귀속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입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출금 및 이체 등 잔액변동이 불가합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이벤트 및 상품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6-06139호 (2026.04.17.~2027.04.16.)

민주당, 주택 공급 ‘속도전’… 비아파트·모듈러 총동원

주택시장 안정화TF 1차회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기간 단축
금융 지원·주거복지 등 폭넓게 다뤄
도시정비법 등 후속 입법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12일 1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 인사말에서 “당장 내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융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해 편해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에서 한 직무대행을 비롯해 한정에 정책위의장, 김한규·김영



한병도(왼쪽 아래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익원(오른쪽 아래 세번째)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북기왕·오기형·이해식·정태호·박상혁·김남근·김영환·박만규·인태준·이연희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했고, 정부에선 이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오랜 가치인 주거복지도 강화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내겠다.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경쟁으로는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

작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는 가로막고 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안행불일치인가”라며 “더욱이 각급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바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의 무능이다. 여당이었던 3년 동안은 주택 공급을 마뒀놓고, 야당이 돼선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에는 건건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 병목이 장기간 지속됐다”며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간공급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그리고 모듈러

방식을 도입해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된다”고 거듭 말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공급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아시겠지만, 9·7 대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안이 8개월 넘도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엔 무슨일이 있어도 해당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분양 시기’ 논란이 일어난 나눔형 공공주택 사전청약자에 대한 금리,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조건을 기존에 안내한대로 적용시켜달라고 위원 전원의 명의로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민주, ‘자질·정체성’ 놓고 후보간 정면충돌

전대 당대표 선거 마지막 토론회
김민석, 정청래 국정 운영 역량 검증
정청래, 金 과거 탈당 이력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마지막 방송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역량과 자질을 집중 검증했고, 정 후보는 김 후보의 2002년 대선 당시 탈당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린 SBS 주관 당 대표 후보 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정 후보에게 국내 4대 대기업 회장들과 30분 이상 토론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는 확증편향 현상이 심하다. 김 후보가 당 대표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당 대표를 하게 되면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당 대표를 해본 적이 있으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기업 총수를 자주 만나서 좋

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자랑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경제 정책을 다뤄 본 적이 있는가. 기업 총수들과 대화할 정도로 경륜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고 안 해 본 것이 명확해서 물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불교계와 갈등을 일으켜 결국 지난 20대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에게 “그 당시 정 후보가 사과를 거부하고 탈당도 거부하고 문제 제기를 한 후보 측을 비난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는 “스님에게 물어보라. 정청래를 다들 좋아한다.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문화재 보호법으로 해결했다”며 “절에 가면 돈을 냈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를 돕

던 김민석 의원이 정몽준 국민승리21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을 탈당한 과거를 꺼내며 이에 대한 입장을 송영길 당 대표 후보에게 물었다.

송 후보는 “(김 후보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당시 저도 비판을 많이 했다.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았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용서하고 받아줬다”고 김 후보를 옹호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박 대통령의 스마트한 덕분에 산업화를 해냈다’고 한 언급을 두고 ‘기가 막힌 이야기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핵심 코어층의 마음이 식은 것 아니냐’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안보실, 北 미사일 발사에 “도발 중단 촉구”

여야 한목소리 규탄

국가안보실이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긴급 회의를 열고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북한을 규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안보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원

산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후 엿새 만에, 올해 들어 11번째다. 오는 17일 시작되는 UFS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군사태세 점검과 한미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을 두고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 등으로 반발해 왔다.

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도발 행위”라며 “즉각 군사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야외 기동훈련(FTX) 축소에 대해 “훈련이 위축되고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린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촉구했다.

/서예진 기자 syj@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여성 안전 공백”

토론회 열고 대책 마련 나서
“경찰 수사 오류 시정 위해 필요”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여성 안전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여(對興)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그대로 드러난다”며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수사하지 못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경찰 수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럼에도) 국민 다수와 대부분의 전문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검

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이미 알았는지, 역사에 죄인으로 남는 게 두려웠는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다”며 “국민주권 정부라더니 국민 무시 정부, 국민 포기 정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7월 31일 민주당이 국민의 우려와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법안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는데 도장을 찍어줬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그(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의한 부작용)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단 없애고 보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범죄 수사 역량 약화로 인한 범죄 증가”라고 주장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요즘 일상 365일 안심되도록

KT는 AI가 신종·변형 스팸 문자까지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차단하는
AI 스팸 차단 서비스를 모든 고객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고객이라면 누구나

KT와 KT 알뜰폰 전 고객에게 무료 제공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적용)

AI가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차단

AI가 문자 패턴을 분석하여
신종·변형 스팸까지 실시간 탐지하고 차단

365일 24시간 언제나

주말·야간 포함한 상시 운영으로
고객 일상을 늘 안전하게



고유가 실속템 ‘주유 특화카드’ 신규발급 잇따라 중단

신한카드, 알뜰주유소 카드 등 중단
롯데카드, 31일부터 6개 카드 단종
카드사, 주유카드 ‘역마진 구조’
기름값 불안… 소비자 선택권 축소

일부카드사들이 주유 특화카드를 중단하고 있다. 올해 초 미·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 요청에 따라 주유 할인 혜택을 연장했던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알뜰주유소’ 카드와 함께 ‘택배복지’ 카드(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대상)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알뜰주유소 카드는 전국 900여 곳 알뜰주유소에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리터당 60원을 할인해 주는 주유 특화카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할인 혜택도 포함한다.

택배복지 카드는 택배용 화물차량 운전자 전용 유류 구매 카드다. 화물 우대주유소에서 경우 주유 시 리터당 최대 7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K에너지, GS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텍스, S-OIL에서는 리터당 현장 할인 15원에 결제일 할인 55원을 더해준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현장 할인, 결제일 할인에 더해 정유사 포인트 적립 혜택도 지급했다.

롯데카드도 이달 31일부터 총 6개의 주유 특화 카드를 단종한다. ‘오일 킹(OIL KING) SK 롯데카드’, ‘SK롯데체크카

드’, ‘뉴GS칼텍스 롯데카드’, ‘구도일 플러스100롯데카드’, ‘HD현대오일뱅크 라이빙 패스 롯데카드’, ‘SK 드라이빙 패스 롯데카드’ 등이다.

각 카드는 SK주유소, GS주유소,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유소에서 리터당 할인, 적립 혜택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오일 킹 SK 롯데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청구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구도일 플러스 100 롯데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리터당 100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앞서 올해 초 카드사들은 미·이란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치솟자 정부 요구에 따라 주유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카드사들의 주유 할인 혜택 지원은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7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4월에는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주유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카드사들이 주유 특화카드를 단종하는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주유 카드는 대표적인 역마진 구조다. 주유소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 수익 대비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과 조달 원가가 더 비싸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올해 초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하던 시기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요구한 주유업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단종이 노후 상품 정리와 포트폴리오 재정비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휘발유 가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유 특화카드가 축소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864원으로, 지난 6~7월부터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협상 교착에 따라 최근 국제 유가는 5% 넘게 급증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만큼 국내 기름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서 고유가 혜택 지원 확대 시기 들어갔던 비용이 크지는 않았다”면서 “상품라인업 재정비에 따른 상품 운영 조정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관계자 역시 “해당 카드는 출시연도가 최소 10년 이상된 카드”라며 “이번 상품 포트폴리오 개편을 위해 발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금행넷, 미래세대 금융역량 향상 교육 실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업무협약
‘이코노미클래스 프로젝트 2기’ 운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미래세대의 금융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금행넷은 금융위원회 승인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금융경제교육 전문단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금행넷은 12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 프로젝트 2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민병두 금행넷 이사(전 국회 정부위원장), 한미미 금행넷 이사(현 서울 YWCA 국제협력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2화차를 맞은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는 미래세대의 금융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당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진행했으나,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아동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금행넷은 지난해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 1기’부터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협력해 서울·경기 지역 아동센터에서 지역 초등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돕는다. 양 기관은 교육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내용 및 운영 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는 지

역아동센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금융지식을 교육하고,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교육 기회가 적은 아동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별 선별 비중을 조정했으며, 다양한 금융상황에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심화 교육과정’도 새롭게 적용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작년 1기에 이어 올해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심화 커리큘럼으로 미래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의 해소와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

한화손보, 민원 최저… 보험지표 개선세

2분기 민원 전년비 11.5% 감소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 13.2% ↓

캐롯손해보험을 품은 한화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민원 환산건수가 통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며 차보험사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외형 성장에 이어 소비자지표도 개선됐지만 전체 민원의 93%가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을 거쳐 접수됐고 핵심 전산 통합도 진행 중이어서 안정화 여부는 추가로 지켜봐야 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분기 한화손보의 전체 민원은 664건으로 전 분기(750건)보다 11.5% 감소했다.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도 7.49건에서 6.50건으로 13.2% 줄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업계 전체 민원이 1만1108건에서 1만893건으로 1.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한화손보의 감소 폭이 컸다.

자동차보험 지표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한화손보의 자동차보험 민원은 1분기 163건에서 2분기 136건으로 16.6% 감소했다.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은 9.89건에서 8.03건으로 18.8% 줄었다.

2분기 자동차보험 환산건수를 빅5와 비교해도 한화손보가 가장 낮았다. 현대해상은 8.70건, DB손해보험은 10.87건, 삼성화재는 11.93건, KB손해보험은 11.94건이었다. 회사별 상품과 고객 구성이 달라 이를 소비자보호 수준의 절대적인 순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 규모를 반영한 공식 소비자지표에서 한화손보가 대형사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10월 캐롯손보를 흡수합병했다. 한화손보가 캐롯손보를 흡수 합병한 지난해 4분기 자동차보험 민원은 145건, 환산건수는 8.95건이었다. 올해 1분기 각각 163건과 9.89건으로 올랐다가 2분기에는 136건과 8.03건으로 내려왔다. 민원 건수와 환산건수 모두 비교 가능한 통합 이후 세 분기 중 가장 낮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전체 민원은 546건에서 664건으로 21.6% 늘었다. 다만 지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사옥. /한화손해보험

난해 2분기는 합병 전 한화손보 단독 실적인 반면 올해 수치에는 캐롯손보의 계약과 고객 기반이 포함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통합 이후 분기별 흐름과 보유 계약을 반영한 환산건수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이번 변화는 자동차보험 외형이 빠르게 커지는 시기에 나타났다. 점에서 주목된다. 한화손보는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매출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도 통합 전 5.6%에서 올해 1분기 6.0%로 상승했다. 계약 증가 효과를 반영한 민원 환산건수까지 하락하면서 적어도 2분기에는 외형 확대가 민원 강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사고 접수와 보상협의, 수리안내 등 고객과의 접점이 넓어 그 과정에서 고객경험을 중요한 소비자보호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고객의 소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관리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롯 통합 이후 숙려된 업무·보상 인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불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며 안정적인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KB금융, 소방공무원 건강회복 지원 확대

국립소방병원 ‘국민의 영웅쉼터’ 조성

KB금융그룹은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 소재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소방공무원의 치료·회복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과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안전지킴이’ 소방공무원의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소방전문 병원이다. 화상·재활·정신건강 등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사업은 KB금융그룹 계열사인 KB손해보험이 추진한 소방공무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KB손해보험은 국립소방병원 내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을 위한 휴식 공간인 ‘국민의 영웅쉼터’ (3개소)를 조성하고,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KB손해보험 구분옥 사장, 국립소방병원 광영호 병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온기우편함’과 ‘회복응원키트’ 600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백남중 서울대학교병원장, 광영호 국립소방병원장, KB손해보험 구분옥 대표 등 150여 명의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정보 연계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임대차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자료를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부동산원은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신고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임차인이 제공에 동의한 정보가 해당된다. HUG는 제공받은 확정일자과 전입신고 정보를 함께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안내한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현대차그룹, AI 전환 ‘성과’… 사내 플랫폼 이용자 3만명

일반·연구직 약 80% 업무에 적용
차량번호 판독로 연 52억 비용 절감
새만금 500MW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자율주행 기반모델 직접투자 확보
축적 역량 바탕 피지컬AI 확산 준비

현대자동차그룹이DX(디지털 전환)와 AX(인공지능 전환)를 넘어 피지컬AI를 전사적으로 확산한다.

현대차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AX 성과 발표회’를 열고 성과와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 등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 ICT담당 진은숙 사장은 “AI는 기업이 활용해야 할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해 조직의 성과로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 아니라 가장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H Chat Pro’는 지난 7월 기준 사용자 3만명을 넘어섰다. 현대차·기아 일반·연구



현대차그룹 AX 성과발표회에서 진은숙 현대차·기아 ICT담당 사장이 발언하고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직의 약 80%에 해당한다.

이런 확산의 배경에는 정의선 회장의 의지가 강했다. 진 사장에 따르면 정의장은 “코딩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코딩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기술 변화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라며 “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빠른 확산에는 리스크도 따랐다. 지난 6월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에서 나온 일화다. 진 사장에 따르면 그룹 내 한 직원이 만든 AI 에이전트가 사내 문서 5000건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사고가 발생해 3일간 업무 차질이 빚어졌다.

진 사장은 “어떤 기업의 AX가 어디까

지 갔는지 알고 싶으면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된다”며 “아무 사고도 없었다는 건 그만큼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황 CEO도 뚜렷한 해법은 없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AI 에이전트는 폐쇄망에 가둬 동작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수치로 나타난 성과도 뚜렷하다. 차량

식별번호 자동 판독 서비스는 국내의 공장 기준 연간 52억4000만원을 절감했고, 고객 리뷰 자동 분류·답변 솔루션은 처리 시간을 35분에서 5분으로 줄였다.

이어 중장기 계획도 공개했다. 전북 새만금에 500메가와트(MW) 규모 부지를 확보해 2029년 말에서 2030년 사이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한다.

자율주행 등 상품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의 기반모델은 직접 투자해 확보하고, 백오피스 업무에는 외부 기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엔비디아와의 제휴로 확보하고 있다. 차량 개발기간 단축도 추가 과제로 꼽았다. 중국차에 비해 긴 개발기간을 요소별로 줄이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AI로 어떻게 관리할지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사장은 “AX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운영 경험, 실행 역량이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기·LG이노텍, AI부품 수요에 증설 경쟁

MLCC·FC-BGA 공급난 2028년 지속
삼성전기, 텐진공장 풀가동·계약 확대
LG이노텍, 베트남 증설·투자 검토

인공지능(AI) 서버 투자확대에 적응세 라믹커패시터(MLCC)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고부가 전자부품 수요가 거세지고 있다. MLCC는 주요 업체들의 공장이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FC-BGA도 AI 서버에 이어 범용 서버와 스위치 IC까지 수요가 번지는 모습이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생산능력 확대와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중국 텐진 MLCC 공장은 최근 풀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I서버용 고용량 제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성전기는 하이퍼스케일러와 주요 반도체 업체 등 10여개 고객사와 MLCC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하고 추가 계약도 논의하고 있다.

FC-BGA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삼

성전기는 지난2분기부터 북미 신규 빅테크 고객사에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용 FC-BGA 공급을 시작했다. 베트남 생산 법인에는 12억달러를 투자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이노텍도 베트남 하이퐁반도체기판 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무선주파수 시스템 인패키지(RF-SiP)와 FC-BGA 등에 LT A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위치 IC용 FC-BGA 양산에 나설 예정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 여력은 빠듯하다. K 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글로벌 빅테크의 메모리와 AI 기판 수요 총족률이 60~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초고해상도 모니터로 의료 B2B 공략

11MP 화면에 CT·MRI 등 동시 확인
FDA 승인 받아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

LG전자가 한 화면에서 여러 의료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진단용 모니터를 앞세워 기업간거래(B2B) 의료기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40형 진단용 모니터(모델명 40HT513D)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제품은 21대9 화면 비율의 곡면 IPS 블랙 패널을 적용했다. 5120×2160 해상도와 총 11메가픽셀(MP)을 구현해 기존 3메가픽셀급 모니터 3대로 처리하던 업무를 하나의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한 화면을 세 구역으로 분할해 서로 다른 영상 소스를 띄우는 ‘3PBP(3 Picture By Picture)’ 기능도 탑재했다. 엑스레이

나 CT, MRI 영상과 전자의무기록(EMR) 등 여러 자료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화면 간 경계와 시선 이동을 줄였다. 실제 의료진의 사용성 평가에서도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신제품에는 하나의 키보드와 모니터, 마우스로 두 대의 PC를 제어할 수 있는 ‘KVM 스위치’도 내장했다. 모니터의 밝기와 명암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캘리브레이션 센서는 탈부착 방식으로 적용해 유지보수 편의성을 높였다.

소프트웨어(SW) 기능도 강화했다. 관심 영역을 밝게 강조하고 나머지 화면을 어둡게 처리하는 ‘포커스 뷰(Focus View)’와 세포 등 병리학적 세부 구조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패슬로지(Pathology)’ 모드를 지원한다.

/차현정 기자

유탄기유 공급난에 정유사 호황 반사이익

7월 수출가 17% 상승 스프레드 최고
美 수출 90% 급증 공급난 수혜 지속

중동발 공급 차질로 국내 정유사의 유탄기유 호황이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정유사 실적을 끌어올린데 이어 7월에는 한국산 유탄기유 수출가격과 스프레드가 추가 상승했다. 미국향 수출도 크게 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반사이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2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산 유탄기유 수출가격은 배럴당 294달러로 전월 대비 17% 급등했다. 같은 기간 유탄기유 스프레드의 비교 기준인 B-C유 가격은 7% 하락했다. 이에 따라 스프레드는 전월 대비 25% 확대된 배럴당 2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배럴당 70달러 초반이던 스프레드는 올 2분기 160달러대로 뛴 데 이어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유탄기유는 자동차와 산업용 기계 등에 쓰이는 유탄기유의 핵심 원료로,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이다. 가격뿐 아니라 물량도 강세다. 지난 5~7월 한국산 유탄기유의 미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 급증했다.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 차질이 있다. 카타르 쉘(Shell)의 Pearl GTL Train 2가 동차질로 고성능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에 쓰이는 그룹III 유탄기유 공급이 줄었다.

그룹III는 미국석유협회(API)가 5개 등급으로 분류한 유탄기유 중 점도지수가 높고 황 함량이 낮은 고급제품이다. 쉘은 해당 설비 복구 시점을 내년 1분기 말로 제시했다. 공급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그룹III 경쟁력을 갖춘 SK엔트루와 에스오일 등 국내 정유사가 대체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 재직자 AI 역량 강화

산업특화 인재 양성 본격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산업특화 AI 계약학과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아카데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1월 경기 안산 한국공학대대학교 산학융합관에서 AI아카데미 1차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 2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AI아카데미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산업특화 AI 계약학과와 본격적인 학위 운영에 앞서 AI 활용 교육 모델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는 산업 전문성과 AI 역량을 동시에 갖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배터리 3사, ESS 3차 입찰서 수주전 재점화

1조 안팎 2028년 공급 물량 확보
가격 하한제·화재 안전성 반영 주목

제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 시장 입찰을 앞두고 국내 배터리 3사의 물량 확보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선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한 만큼 업계가 건의해 온 가격 하한제와 화재 안전성 등 비가격 평가 확대가 이번 입찰 기준에 반영될지가 수주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공고문에 답을 평가 방식과 사업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8년부터 전력 계통에 공급할 ESS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 규모는 제2차 시장과 비슷한 1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배터리 3사는 제1·2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를 앞세운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76%를 확보했다.

제2차 시장에서는 SK온이 전체 물량의 50%를 수주하며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갔다. 해외 ESS 시장에서 공급 실적을 쌓아온 LG에너지솔루션도 제3차 시장에서 적극적인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가장 큰 부담은 가격이다. 제2차 시장에서 업체 간 물량 확보 경쟁이 입찰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수주를 늘리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배터리 업계는 과도한 저가 경쟁을 완화할 가격 하한선을 마련하고 화재 안전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관희 기자 wkh@

“네이버 16개 법인 따로교섭 끝내자” 노조, 본사 참여 통합교섭 요구

IT 통합교섭구조 모색 토론회
결정권 행사 범위 ‘핵심 쟁점’

네이버제트, 쟁의 행위 가결
파업 시 그룹 출범 來 첫 사례

20일 통합교섭 공식 요구 예정
업계 노사관계 새 모델 만드나

네이버 노동조합이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재 16개 법인에서 연간 150회에 달하는 개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금과 보상, 근무제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네이버 본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구조 역시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네이버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제트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12일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네이버지회는 2018년 출범 당시부터 계열사를 포괄하는 형태로 조직됐다.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서 약 620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교섭을 진행하는 곳은 16개 법인이다.

노조에 따르면 16개 법인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면서 연간 약 150회의 교섭이 이뤄지고 노사 교섭위원 100여명이 매년 1000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오세훈화성식품노조IT위원회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은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다”라며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은 본사에서”…네이버 사용자 책임 쟁점으로

노조가 통합교섭의 근거로 내세우는 핵심은 네이버 본사의 영향력이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의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해 8월 11일 첫 쟁의활동에 나섰다. /공동성명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본사의 임금교섭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일부 지회사는 사측안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본사 합의 이후 평균 한 달 이내 비슷한 수준과 문구로 협상이 타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추가 보상제도와 근무 형태, 복리후생 등에서도 계열사들이 공통적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사옥 이전과 재택·오피스 근무 선택제, AI 조직 재편에 따른 계열사간 인력 이동 등에도 본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도 통합교섭 추진의 주요 근거다. 개정법은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네이버가 모든 계열사의 모든 사안에 대해 자동으로 교섭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재원이나 인사, 평가·보상 등 개별 근로조건에서 모기업이 실제 어느 정도의 지배·결정권을 행사했는지를 따져 교섭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합교섭에서는 네이버가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제트 쟁의권 확보…그룹 첫 파업 가능성

통합교섭 논의와 맞물려 계열사의 노사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메타버스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

버제트 노조는 최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나오면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조건도 갖췄다.

네이버제트 사측은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연봉 동결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네이버 본사와 동일한 5.3%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파업 사례가 된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통합교섭 킥오프’ 행사를 열고 공동 교섭 의제를 공개한 뒤 이달 말 네이버 측에 통합교섭 개시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통합교섭이 현실화하면 IT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사업별 독립법인을 두고 임금·인사 교섭 역시 법인별로 진행해왔다. 반면, 노조는 의사결정 권한이 모기업에 집중된 경우 교섭 구조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계열사별 경영 독립성과 본사의 사용자 책임 사이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AI 팩토리 등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통합교섭에 따른 인건비와 조직 관리 부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노조가 통합교섭을 IT 업계 노사관계의 새로운 ‘판교모델’로 만들겠다는 입장인 만큼 오는 20일 선포식 이후 네이버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OECD 주요 국가 중〉

통신3사, 최저 수익성에도 AI·6G 투자까지 ‘이중고’

지난해 4분기 EBITDA 마진 22.0%
통신3사 영업이익률 7.1% 그쳐
6G에 年 6조, AI에도 대규모 투자

국내 통신3사가 해외 주요 통신 기업보다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통신망 고도화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부담을 떠안고 있다.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발간한 ‘2026이동통신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은 OECD 주요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EBITDA 마진율은 매출액 가운데 법인세,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주로 기업이 얼마나 실질적인 현금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2025년 4분기 기준 한국의 EBITDA 마진은 22.0%로 OECD 주요 20여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에 그쳤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각각 31.69%, 38.02%로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16%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에서도 격차가 뚜렷하다. 2021~2025년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1%에 그쳤다. 반면 미국 3대 이동통신사인 티모바일·AT&T·버라이즌은 19.6%로 국내 통신사의 약 3배에 달했다. 국내 통신사가 매출에 비해 영업에서 남기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문제는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통신망 유지와 고도화를 위한 투자는 계속된다는 점이다. 국내 통신 3사는 매년 최소 6조원 이상의 설비투자(CAPEX)를 부담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5G 망 투자가 집중됐던 2019년보다 줄었지만, 앞으로 6G 상용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이 예측한 올해 통신 3사 합산 설비투자액은 SK텔레콤이 2조3900억원, KT 2조1600억원, LG유플러스 2조200억원이다.

6G는 기존 5G보다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기지국뿐 아니라 소형



AI에 의해 생성된 AI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통신업계 이미지.

기지국을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지 임차료와 인허가 비용, 전력 공급, 전송망 연결, 유지보수, 장비 교체 등 연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통신망 세대 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다.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전환(AX)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초기 투자 부담도 크다. KT는 5년 내 AX 플랫폼 기업 도약을 위해 AI 데이터센터에 5조원(1GW 규모)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최근 설립한 AIDC 전담 자회사 SK하이퍼에 투자하는 금액이 올해만 해도 3300억원에 달한다. LG유플러스가 파주에 건설 중인 AIDC는 1개 동 건물 구축 비용만 약 6100억원이 투입됐다.

결국 국내 통신사는 해외 통신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을 남기면서 통신망 설비 구축과 신사업 확대에 필요한 투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에 전파사용료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각종 부담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정부가 지난해 산정한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최저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2분기 KT는 매출 6조6799억원, 영업이익 6483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매출 4조3591억원, 영업이익 5660억원을,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6949억원, 영업이익 344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조민선 기자 msjo@

LG CNS-DAI,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후보물질 발굴부터 검증까지 지원
연구 데이터 쌓일수록 AI 예측성능 ↑

LG CNS가 제약바이오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선다.

LG CNS는 동아쏘시오그룹 IT 계열사 디에이아이(DAI)와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신약 연구 데이터를 통합하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검증까지 주요 연구 과정을 AI로 지원한다. 양사는 약 6개월에 걸쳐 구축을 완료했다.

신약 개발은 다수의 후보물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통상 10~15년이 걸리고 비용 부담이 큰 분야다.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선별하고, 후보물질의 효과와 안전성을 사전에 예측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AI 예측 결과와 실제 실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연계·학습해 연구 데이터

가 쌓일수록 AI 예측 성능이 높아지는 게 특징이다. 제약산업의 규제와 보안 요구 사항을 고려해 민감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도 적용했다.

플랫폼은 신약개발의 주요 연구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질병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세포별 유전자 정보와 조직 내 위치 정보를 AI로 분석·시각화해 치료 표적 탐색을 돕는다.

후보물질 설계 단계에서는 생성형 AI가 연구 조건에 맞는 물질 구조를 설계한다. 이후 검증 단계에서는 후보물질과 표적 간 결합 가능성, 작용 안정성 등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예측한다. 실제 실험 전 컴퓨터 환경에서 후보물질을 가상 검증해 유망 물질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LG CNS는 데이터 수집과 AI 분석, 실험, 검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신약개발 효율과 연구 품질을 높이는 데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LG U+, 공공부문에 AWS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생성형 AI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LG유플러스가 공공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형 인프라(IaaS) 중개서비스를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공식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형 인프라(I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계약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전용 플랫폼이다.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엘지유플러스 중개서비스 for 아마존웹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디지털서비스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사 서비스를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한 자사의 IaaS는 ‘엘지유플러스 중개서비스 포(For) 아마존웹서비스’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 등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한 민원 상담·업무 지원 챗봇, AI 기반 정보 검색 서비스, 통계·행정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자체 보유한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인공지능 전환(AX) 등의 역량을 활용해 공공 부문에 클라우드 도입 초기 최적의 인프라 구성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혁신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합은 길이 된다



AI 시대 전기화·에너지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SK 은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이스온

박현주 ‘글로벌 독심’ 빛났다… 미래에셋證券 순익 ‘사상 최대’

(미래에셋그룹 회장)

올해 2분기 순이익 1조9052억
영업이익 전년비 397.5% 증가
미국·홍콩 등 고르게 실적 개선
국내 브로커리지 수수료 36% ↑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 2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둬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장기간 추진해 온 글로벌 사업에서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 가운데 국내 주식 거래 활성화와 트레이딩 실적 개선까지 더해진 결과다.

◆순이익 1조9052억원…금융지주급 이익 규모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조48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5%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81.1%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조90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9.4%, 전 분기 대비 90.2%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증권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두 분기 연속 1조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2조52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6.1%, 전 분기보다 86.3% 증가했다. 매출액은 21조63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1%, 전 분기 대비 49.9% 늘었다.

상반기 누적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영업이익은 3조86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5%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3조8863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9072억원으로 각각 348.6%, 337.8% 늘었다.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2조8922억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증권

으로 336.9%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도 뛰었다. 2분기 말 자기 자본은 16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9.5%에 달했다. 증권업계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브로커리지뿐 아니라 해외법인과 트레이딩, 자산관리(WM) 등 여러 사업 부문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자본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익 규모는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해도 두드러졌다.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순이익은 KB금융의 1조9922억원보다 870억원 적었지만 신한금융의 1조8201억원보다 851억원 많았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각각 1조1928억원과 1조46억원이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KB금융 3조8846억원, 신한금융 3조4427억원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하나금융의 2조4029억원과 우리금융의 1조6090억원을 웃돌

았다. 금융지주와 증권사는 사업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의 이익 규모가 대형 금융그룹 수준으로 커졌다는 점은 확인된다.

◆해외법인 세전이익 150% 증가…박현주 글로벌 전략 결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사업이다.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의 2분기 세전이익은 약6091억원으로 1분기 2432억원보다 3659억원, 약 150%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해외 사업에 진출한 이후 거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해외법인의 연결 세전이익 기여도는 약 24%로 전 분기보다 6%포인트 확대됐다. 해외법인 ROE도 24.8%를 기록했다. 해외사업이 외형 확대 단계를 넘어 그룹의 이익을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 이익 비중은 미국 37%, 홍콩 35%, 런던 18%, 인도 5%로 나타났다. 미

국과 홍콩이 해외법인 이익의 72%를 담당한 가운데 런던과 인도 등 주요 거점도 고르게 성과를 냈다. 해외법인의 경상수익 증가와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실적 확대를 이끌었다.

해외 실적의 가파른 성장은 박 회장이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전략의 성과로 평가된다. 박 회장은 국내 증권업에 머물지 않고 미국과 홍콩, 영국, 인도 등으로 사업 기반을 넓혀왔다. 2분기에는 주요 거점이 동시에 이익을 내면서 장기간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됐다.

국내 사업도 증시 거래 활성화와 고객 자산 확대에 힘입어 성장했다. 2분기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6256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6% 증가했다. 주식 거래 증가가 위탁매매 수수료 확대에 이어졌다.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은 1310억원으로 1분기 1125억원보다 185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단순 주식 중개를 넘어 금융상품 판매와 자산관리에서 수수료 기반을 넓힌 결과다.

트레이딩 및 기타금융손익은 8369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07% 증가했다. 투자는 행(IB) 수수료 수익도 428억원으로 65% 늘었다. 해외법인과 브로커리지, 금융상품 판매, 트레이딩, IB 등 주요 사업에서 실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며 전체 이익을 끌어올렸다.

◆고객자산 124조원 증가…전통·디지털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

고객 기반도 커졌다. 2분기 말 국내외 총 고객자산은 78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24조원 증가했다. 연금자산은 지난 6월

말 80조원을 넘어섰으며, 최근 1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시장 평균의 약 2.5배인 60%를 웃돌았다. 고객자산 확대는 브로커리지와 금융상품 판매 등 국내 사업의 수익 증가로 이어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6월 홍콩에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투자 플랫폼 ‘MAPS(Mirae Asset Portfolio Service)’를 출시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해외 투자자가 한국 주식과 미래에셋 상장지수펀드(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인바운드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시한 ‘미래에셋 3.0’ 전략은 디지털자산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코빗은 최근 ‘Digital X’로 사명을 변경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토대로 실물 연계자산(RWA) 토큰화와 토큰증권(STO) 등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연결하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Digital X 임직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 미래에셋의 노하우와 코빗의 전문성을 결합해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Digital X를 미래에셋 3.0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를 공고히 하고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에 기여하는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NH투자증권, AI로 업무·의사결정 혁신

하반기 리더스 컨퍼런스 개최
상반기 지배주주 순이익 9652억
본업 경쟁력 강화, 사업 연계 확대
AI 에이전트·전사 AI 플랫폼 개발

NH투자증권이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결합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한다. 인공지능(AI)을 업무와 서비스, 의사결정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에도 속도를 낸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전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리더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 경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965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행사에서는 ▲본업 경쟁력 강화 ▲사업 간 연계 확대 ▲인공지능 전환 추진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각 사업 부문이 담당하는 고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본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점검했다. 자산관리(WM) 부문은 자문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디지털 부문은 차별화된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투자는



NH투자증권이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전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리더스 컨퍼런스(Leaders Conference)’를 개최했다. 신재욱(왼쪽), 배광수 대표이사 임직원들에게 경영전략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 /NH투자증권

행(IB) 부문은 기업의 성장 단계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자문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사업 부문 간 연계도 확대한다. 각 부문이 보유한 고객 기반과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의 복합적인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행사에서는 외부 강연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인공지능 전환 부문에서는 AI를 단순한 업무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과 회사 운영체계를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 전환은 AI를 기업의 업무와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적용해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NH투자증권은 연초부터 인공지능 전

환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검증해왔다. 이달부터 자산관리·투자은행·기관 영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7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 AI 에이전트 개발과 전사 AI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지시와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올해 말부터는 인공지능 전환을 회사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신재욱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증권업의 본질은 다양해지는 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종합적인 금융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금값 다시 뛴다… 금 ETF 수익률도 ‘정충’

국내 금 테마 ETF 4종 수익률 6.9%

국제 금값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금값 조정 국면에서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가 지 완화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한 금 테마 ETF 4종의 최근 일주일 평균 수익률은 6.9%로 집계됐다.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가 11.86%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금과 은에 동시에 투자하는 ‘TIGER 금은선물(H)’도 5.38% 올랐다. 국제 금값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관련 상품의 수익률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 1월 55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6월 말에 들어서는 4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11일(현지시간) 장 초반 4434.84달러까지 오르면서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도 장중 4400선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서만 약 8.6% 상승하고 있다.

금값 반등은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달러 강세가 진정된 가운데, 가격 조정 이후 투자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수세다. 중앙은행들은 외

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금협회(WGC) 기준 올해 2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288.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최예찬 상생인증권 연구원은 “낮은 가격에서 중앙은행 금 순매수와 투자 수요가 증가했고, 중앙은행의 수요는 지속될 공산이 크다”며 “중요한 전제인 중앙은행 금 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중앙은행 서베이에서 전체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 전망은 올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기관의 금 보유량 전망은 45%가 늘릴 것으로 응답했다는 부연이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20개월 연속 금을 순매입 중이다. 금 가격 조정 국면에는 순매수 물량을 늘리기도 했다. 올해 1월 금값이 고점을 형성했을 당시 4만 트로이 온스에 그쳤던 순매입량을 금값이 4000달러 안팎까지 조정된 7월 64만 트로이온스(약 20톤)로 크게 늘렸다. 7월 월평균 금 현물가격을 대입했을 때, 약 26억달러 수준이다.

한국은행도 금 투자에 나섰다. 한은은 올해 2분기 해외에 상장된 금 현물 ETF를 소규모로 매입했으며, 2023년 이후 13년 만에 실물 금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 보유 비중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9개월 만에 전환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우즈벡 노동행정에 ‘K-AI’ 입힌다… 디지털 행정 협력 확대

노사발전재단, MOU 후속 구체화
노동감독·산업안전 역량 강화 지원
AI 상담·데이터 운영 사례 공유
정책자문·교육 프로그램 연계 추진
ODA 활용 후속사업 발굴도 검토

노사발전재단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AI(인공지능) 기반 노동행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재단은 향후 이 같은 고용·노동 국제협력사업을 늘려, 한국의 성공적인 고용노동 정책 및 디지털 행정 모델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개선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우즈베키스탄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서울 총정으로 소재 노사발전재단에 모인 양측은 노동보호법 개정, 노동감독제도 개선, 노동감독관 교육체계 구축 등 정책자문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5월 재단-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AI 기반 노동행정 ▲노동감독 ▲산업안전 감독역량 강화 분야의 후속 협력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노동행정 디지털 전환 및



박종필(앞줄 가운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총정으로 노사발전재단에서 라노 예쇼브나 투르디보바예바(앞줄 오른쪽 4번째)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차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동감독관 역량강화 정책에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을 접목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정책협력의 한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은 한국의 AI 기반 노동행정 서비스 및 데이터 기반 행정운영 사례 공유에 더해, 양국이 추진해 나갈 AI 기반 디지털 노동행정 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행사에는 우즈벡 고용빈곤퇴치부의 라노 예쇼브나 투르디보바예바 차관과 국가 노동감독원, 산업안전국, AI 도입 및 개발부, 직원교육훈련센터 관계자 등이 참

석했다. 한국 측에선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등 노동행정 전문가가 다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체결한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이 노동법 제도 분야를 넘어 디지털 노동행정과 노동감독, 산업안전 감독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동세미나와 초청연수는 한국의 제도와 디지털 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을 넘어, 우즈베키스탄의 노동행정 혁신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 “재단은 그동안 축적한 노동정책 자문과 국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용노동 정책과 디지털 행정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공공협력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협력국과 지속 가능한 고용노동 협력사업을 확대해 우리나라 노동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노동부 지능정보화기획팀의 김동현 과장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노동행정 혁신’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AI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운영 사례,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AI 상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언급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노동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 경험을 공유했다. 우즈벡의 디지털 정부 및 노동행정 혁신에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과 시사점 등을 제시한 것.

우즈베키스탄은 ‘2024년 이후 노동 분야 법·제도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의 정책 자문 이후 추진된 제도 개선과 향후 추진 과제 등을 언급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노동감독 제도의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방안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교육, 정책 자문,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 후속 협력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이날 2~8일 진행된 한국 초청연수 기간 국내외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및 안전 체험교육 등도 참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송미령 장관, 농업인단체와 폭염 안전 캠페인

농식품부, 농업인단체 14곳과 발대식
8월 말까지 전국 농작업 현장서 전개
폭염 대응 5대 안전수칙 준수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2일 주요 농업인단체장 14인과 ‘농업분야 폭염 대응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이달 말까지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송 장관은 폭염 시 농작업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농업인 단체가 나서서 폭염 안전수칙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농업인 단체장은 8월 말까지 자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현장의 농작업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고 ‘농업분야 폭염대응 안전수칙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

캠페인 슬로건으로 “폭염 속 휴식은 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를 내걸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외국인노동자 등이 폭염 시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다.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 조정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앞서 8일 송미령 장관은 전북 익산 소재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농작업 멈춤’에 대한 현장 실천상황을 살폈다. 또 상추 시설하우스를 방문해, 농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는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농작물 생육관리 등 폭염 대응 요령을 실천해 주시고, 관계기관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동남권 ‘해양수도권’ 투자유치 본격화

해수부, 부산·울산·경남과 상생협약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3곳 및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다자간 협약을 맺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투자 유치에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달 13일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다자간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이 협약은 동남권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양·항만 기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투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참여기관들의 협력해 나갈 분야는 ▲해양수도권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 공동 전략 수립과 추진 ▲친환경 에너지·제

조AI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 기반 확충 ▲규제·제도 개선 및 현장 애로 해소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및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공동 홍보 협력 등이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출범한 고위급 정책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경제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상생협약을 계기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황중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수부와 지자체,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해 동남권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해양수도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中 징동, 한국법인 세워 K-소비재 직매입

산업부·코트라, 입점 설명회·상담회

중국 최대 B2C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그룹(JD.com)이 한국에 전문 구매법인을 설립하고 K-소비재 직접 수입에 나선다. 중간 대리상을 거치지 않는 직매입 방식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물류 및 결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2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 본사에서 징동그룹과 공동으로 ‘징동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우수 소비재 기업 200여 개사가 참석했으며, 징동 구매담당자와의 1대 1 상담과 함께 국내 기업 9개사와 총 150만 달러 규모의 직매입 수출

계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양치훈 징동그룹 부회장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K-뷰티, 식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한국 제품의 직매입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중(對中) 소비재 수출은 지난 2021년 약 93억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지속 감소했으나, 현지 유통망 협력 등에 힘입어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34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금 결제가 안정적이고 마진율이 높은 직매입 방식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국마사회, 제주 불법도축 현장서 말 4마리 구조

올해 전북 포함 총 12마리 구조
학대·방치마 의무신고제 전환 추진

한국마사회가 최근 제주지역 불법도축 현장에서 말 네 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 말은 제주도 지정 ‘말 보호시설’(제주대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이송됐다.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다. 마사회는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했고, 제주도청 및 말 보호시설과 협력해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함에 따라 4두 모두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지자체가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말 보호시설은 전북과 제주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마사회가 지자체와 협조해 구조한 말은 올해 총 12마리로, 전북 소재 말 보호시설(전북말산업복합센터)에서 8마리를 구조한 바 있다. 제주는 이번이 첫 사례다.

마사회는 말 학대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말 전문가를 말 보호관으로 위촉해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말 복지 취약지역 컨설팅도 병행한다.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은 마주 개인

의 소유다. 마사회가 직접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는 탓에 구조 및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현행 자율신고 방식을 의무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회중 한국마사회 회장은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학대·방치마 제보 접수부터 현장 구조까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창구”라며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학대·방치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SKY 학종 지원자, 고교유형 따라 내신 최대 ‘2.08등급’ 차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1.87등급
자사고 2.86등급, 과학고 3.9등급

학종 입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학교 교육과정·학생부 함께 봐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희망자의 평균 내신이 고교유형에 따라 최대 2.08등급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12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 모의지원 1만2525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지원자의 평균 내신은 1.87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율형사립고 2.86등급, 외국어고·국제고 3.05등급, 과학고 3.95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SKY 학



지난 7월 2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별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생부종합전형을 목표로 한 지원자 집단 안에서도 고교유형에 따라 평균 내신이 최대 2.08등급 차이를 보였다.

진학사는 이러한 차이가 특정 고교유형에 대한 대학의 우대나 불이익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뿐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과목 이수 현황과 성취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탐구활동 등 학생부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학교별 교육과정과

학생부 내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대학이 공개한 실제 입시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노어노문학과 2026학년도 70% 컷은 3.31등급이었지만,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 다양한 고교유형 합격자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개인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고교유형별 합격 성적을 공개한 서울시립대 사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202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I에서 일반고와 자사고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이 모두 공개된 13개 모집단위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는 평균 2.32등급, 자사고는 4.07등급으로 1.75등급 차이를 보였다.

모집단위별로는 교통공학도가 일반고 2.39등급, 자사고 6.29등급으로 3.90등급

차이를 기록했다.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는 일반고 2.35등급, 자사고 5.93등급으로 3.58등급 차이가 났다. 신소재공학과(2.37등급 차),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1.35등급 차), 경영학부(1.37등급 차) 등에서도 일반고와 자사고 간 평균 내신 차이가 확인됐다.

우연철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학이 발표하는 입결은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합격선이 아니다”며 “같은 대학·학과 합격자라도 고교유형에 따라 내신 분포가 달라 평균 등급만 보고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면 전략을 잘못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공개된 입시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자신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부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전국 고교생 대상 프로젝트형 AI 교육캠프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내일까지
‘전국 학생 AI 꿈키움 캠프’ 열어
협업 프로젝트, 연구시설 탐방 진행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형 인공지능(AI) 교육 캠프를 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육부, 연세대학교와 함께 13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2026년 전국 학생 AI 꿈키움 캠프’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서울시교육청·연세대 AI혁신연구원 AI에듀테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연결, 함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전국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200명과 인솔교사 40명 등

총 240명이 참가한다.

캠프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경험과 관심 분야에 따라 ▲바이브 코딩 ▲생성형 AI+파이썬 ▲AI·로봇 ▲GPU 활용 딥러닝 등 4개 트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참여한다.

바이브 코딩 트랙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생성형 AI+파이썬 트랙에서는 생성형 AI와 파이썬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AI·로봇 트랙은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을 활용한 해커톤을, GPU 활용 딥러닝 트랙은 GPU 기반 딥러닝 모델 구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캠프에 앞서 참가 학생들은 온라인 사전교육을 통해 기초 개념과 실습 환경을

익히고 팀별 프로젝트 주제를 준비했다.

첫날인 13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연세대 교육학과 김남주 교수의 ‘AI 시대 학생들의 진로’ 특강이 열린다. 이어 트랙별 프로젝트 실습과 참가 학생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김지웅 교수가 ‘AI 시대 국내외 산업·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연세대 교육·연구시설을 둘러보고 결과물을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교 AI·정보교육과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을 연계하고, 학생들의 AI 역량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함양군 여행경비 50% 환급

함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한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내 재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편성한 시범사업으로,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본사업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관광객이 사전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은 뒤, 방문 기간에 관광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최대 20만원, 동일 거주지 가족 5인까지 최대 50만원이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환급금의 20%가 추가 가산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함양 지역 내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자금 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앞줄 왼쪽부터)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건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건의

수원·의왕·군포·안산 4개 자치단체

수원·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 4개 자치단체가 신분당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추진’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당 지역 경기도의원 등 13명이 참석해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에 힘을 합쳤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기존 광교역에서 북수원·장안지구·이목지구와 의왕역을 거쳐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지나 안산 반월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4.54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2024년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을 건의한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4개 지자체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수원·의왕·군포·안산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연결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신속 추진 박차

공사비 검증 절차 ‘조합 재량’으로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절차를 조합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꾸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 과제 2건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개선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가 담겼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 절차를 조합의 재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사비 검증 여부는 사업장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해 조합이 자율적으

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때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는 ‘세대주 성명’을 기재해야 해 소유자별 세대주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가 주요 확인 사항이고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도 개정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한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전재수, 동래시장서 현장 목소리 청취

(부산시장)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 열어

전재수 부산시장은 11일 오후 3시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민생 100일 동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고물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동래시장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 상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동래시장은 조선시대 5일장에서 유래해 일제강점기인 1937년 상설시장으로 자리잡은 부산 최초 전통시장이다.

부산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소비활력쿠폰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과 주차 인프라 확충,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 후에는 동래시장 주요 점포를 둘러보는 현장 순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동백전 QR결제 신규 가맹점포에 QR코드 패넌을 전달하며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백전 QR가맹점’ 확대에도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전 시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1일 1호 결재로 서명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시행 42일째에 마련됐다. 당시 시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1조3783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23thkepik 전력산업기술기준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2026 KEPIC-Week

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



2026. 8. 25.(화) - 8. 28.(금)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

전력산업계 최신 기술동향과 기술기준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정보교류의 장

주최

KEA 대한전기산업연합회
Korea Electrical-Industry Association

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찬

전력산업계

지원

GWTG

강원관광재단

1.3조 롯데렌탈 지분 TPG에 매각… 재무개선·신사업 강화

롯데, 호텔계열 지분 61.2% 넘겨
총차입금 8.6조 자금 부담 완화
비주력 자산 정리해 핵심사업 집중
바이오·소재·수소 성장동력 육성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후 거래 종결

롯데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을 1조 3105억원에 매각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유동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 비주력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대규모 현금을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 투자에 투입하면서 차입금과 투자 부담이 누적된 호텔롯데의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롯데는 지난 11일 글로벌 투자회사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61.2% 전량으로, 호텔롯데가 38.1%, 부산롯데호텔이 23.0%를 보유하고 있다. 매각 규모는 총 1조3105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롯데쇼핑

억원이다.

롯데는 2024년 말 어파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듬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롯데는 지난 5월 어파니티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다수의 잠재 매수자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롯데는 제안받은 기업가치와 인수 구조, 고용 보장, 거래 종결 가능성, 자금 조달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해 T

PG를 최종 인수자로 선정했다.

롯데렌탈은 단·장기 렌더카와 중고차 판매,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TPG는 우버 등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에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렌탈의 사업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1조3100억원대의 자금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재무구조 개선 및 신사업 투자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 1분기 기준 총차입금이 8조6000억원에 달하고 롯데건설 PF 리스크 방어, 롯데바이오로직스 출자, 뉴욕 롯데시티호텔 팰리스 토지 매입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컸던 호텔롯데의 재무적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는 비주력 사업과 자산을 정리하는 동시에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롯데는 2024년부터 롯데웰푸드 증평공장,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LCPL),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자회사 롯데에코윌 등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롯데칠성음료 지점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

동시에 바이오, 고부가화학 소재, 수소 등 미래 성장 동력업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참여를 비롯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AI 데이터센터용 동박·ESS 전지박 공급 확대, 합작법인 '롯데SK에너지'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최종 종결될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회사 중장기 성장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롯데렌탈의 인수자를 선정했다”며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SSG닷컴, 장보기 강화에 배송 경쟁력 ‘쑥’

7월 그로서리 매출 전년비 12% 증가
쑥 주간배송 매출 30% 가까이 늘어
2시간 배송 연내 50여개 점포 확대

SSG닷컴은 온라인 장보기 사업 강화에 나선 이후 3개월간의 성과를 12일 공개했다.

SSG닷컴은 지난 4월부터 예약배송과 즉시배송을 아우르는 배송 체계를 확대하고 이마트와 연계한 상품·프로모션, 유료 멤버십 ‘쑥7클럽’을 강화해왔다. 이에 지난 7월 그로서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배송 부문에서는 이마트 점포를 거점으로 한 예약배송 ‘쑥 주간배송’의 수령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배송 물량을 확대했다. 쑥 주간배송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으며, 7월에는 증가율이 30%에 육박했다.

점포 반경 3km 내 상품을 1시간 내외로 배송하는 즉시배송 서비스 ‘바로퀵’도 이용이 늘었다. 2분기 주문 건수는 1분기 대비 151% 증가했으며, 6월 주문 건수는 지난 1월보다 244% 늘었다.

지난달에는 이마트 양재점과 하남점을 거점으로 ‘2시간 배송’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대용량 장보기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로, 소량 장보기 중심의 바로퀵과 병행해 운영한다.

SSG닷컴은 이달 중 2시간 배송을 서울 주요 권역을 비롯해 부산·경남, 대구, 대전 등 10여 개 점포에 추가 도입하고 연내 최대 50여 개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하루 최대 15만 건 규모의 배송 처리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상품과 프로모션 부문에서는 이마트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상품 구색을 확대하고 보

랭 포장 등 콜드체인 관리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신선보장제도’ 적용 신선식품을 구매한 고객 가운데 60% 이상이 같은 분기 내 신선식품을 다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프로모션 ‘그레이트 페스타’의 2분기 행사 일평균 온라인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20% 증가했다.

유료 멤버십 ‘쑥7클럽’의 가입 유지율은 90%를 웃돌았다. 회원의 장보기 객단가는 비회원보다 90% 이상 높았으며 구매 횟수는 약 2배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회원의 월평균 적립액은 월 구독료의 약 3배였고 VIP 회원은 약 10배 수준이었다.

지난 7월에는 멤버십 연계 프로모션을 매주 진행하면서 회원 매출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버드와이저, 관객 ‘떼창’으로 채운 음악 파티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3회 개최

버드와이저가 관객의 떼창을 공연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한 참여형 음악 파티를 선보인다. 클럽에서 DJ 공연을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객이 직접 노래와 호응으로 무대를 채우는 방식이다.

‘버드엑스비츠 싱어롱 파티’는 대중에게 익숙한 음악을 함께 따라 부르는 콘셉트로,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총 3회 열린다. 첫 행사는 오는 14일 서울 이태원 클럽 ‘소프’에서 진행된다. 메인 DJ로는 캐나다 출신 탄테이블리스트 에이-트랙(A-TRAK)이 참여하며 AYLA, ROM & BAAWLA, SIN DOGG, FALL ENS, POOL 등 국내외 DJ들도 무대에 오른다.

관객 참여도 확대했다. 행사 전 버드와이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함께 부르고 싶은 곡과 가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내용은 행사장 주변과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한다. 현장에서는 공연을 적극적으로 즐길 관객을 선정해 기념 촬영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버드엑스비츠 싱어롱 파티.

/오비맥주

버드와이저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싱어롱 파티를 올해 정례 행사로 확대했다. 10월에는 부산 서면에서 행사를 열고, 12월 일정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버드와이저의 음악 플랫폼 ‘버드엑스비츠’는 2019년부터 아티스트 공연과 음악 콘텐츠를 선보이며 브랜드와 음악 팬의 접점을 넓혀왔다.

/신원선기자 tree6834@

NS홈쇼핑, 5070 고객과 방송·콘텐츠 만든다

고객 7명 ‘NS 스킨십 서포터즈’ 구성
방송 연출 의견·상품 후기 제작 참여

NS홈쇼핑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5070 고객과 함께 방송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2026NS 스킨십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NS 스킨십 서포터즈’는 NS홈쇼핑의 주요 고객층인 5070세대의 생활 방식과 상품 이용 경험, 관심 트렌드 등을 방송 연출과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고객 참여형 프로젝트다.

서포터즈는 5070세대 고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 20일까지 격주로 총 6회 활동한다.

지난 11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활동 취지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본사와 스튜디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주요 활동은 ▲PD 등 실무진과의 FGI(표적집단면접)를 통한 고객 의견 수렴 ▲



NS홈쇼핑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5070 고객과 함께 방송과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2026 NS 스킨십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NS홈쇼핑

방송 연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개선 과정 참여 ▲상품 사용 경험을 담은 후기 콘텐츠 제작 ▲NS 요리지널 콘텐츠 제작 등이다.

NS홈쇼핑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수집한 고객 의견과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향후 방송 기획과 연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포터즈가 제작에 참여한 상품 사용 후기와 요리지널 콘텐츠는 생방송을 비롯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도 활용한다.

정유찬 NS홈쇼핑 TV콘텐츠사업본부

이사는 “5070 고객의 일상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방송과 콘텐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이번 서포터즈의 취지”라며 “고객을 단순한 모니터링 주체가 아닌 방송과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로 모시고 고객 참여형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바이탈뷰티, PDRN 담은 ‘마시는 콜라겐’

피부와 의료진 협업, 이중 제형 설계

시술과이너뷰티의 경계가 사라지는 가운데, 바이탈뷰티가 전문적인 피부 관리의 효과를 일상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마시는 콜라겐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너뷰티 전문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고함량의 PDRN과 저분자 콜라겐을 한 병에 담은 신제품 ‘슈퍼콜라겐 PDRN’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70년 이상 축적된 아모레퍼시픽의 피부 과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부과 전문 의료진과의 협업을 거쳐 탄생했다.

정제와 액상의 이중 제형 설계로 섭취 편의를 높였다. 정제에는 인체 조직과 유사성이 뛰어난 알래스카 연어 추출 PDR

N 100mg을 비롯해 히알루론산, 글루타치온을 배합했다. 하단 앰플에는 AP콜라겐호소분해펩타이드를 적용했다. 기존 제품 대비 체내 흡수율을 9.4배 끌어올린 300~500달톤(Da) 크기의 초저분자 콜라겐 6000mg을 채웠다. 여기에 포도씨 및 레드오렌지 추출물과 비타민C를 더해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을 잡았다.

해외 고객 접점 확대에도 나선다. 바이탈뷰티는 글로벌 미용료 플랫폼 ‘강남 언니’의 외국인 서비스인 ‘언니가이드’와 연계해 K뷰티 시술을 예약한 해외 방문객에게 전용 키트를 증정한다. 병원 방문 치료 이후에도 일상에서 간편하게 체내 뷰티 컨디션을 유지하는 ‘마시는 애프터 루틴’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현대차그룹, 소방관 안전 이어 치료·재활까지 돕는다

국립소방병원에 구급차 2대와
심폐재활 운동검사 장비 등 기증

현대자동차그룹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우리 시대의 영웅인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차량 및 재활장비를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증 품목은 현대차 ST1 기반 구급차 2대와 의료용 착용로봇 '엑스블 맥스(X-ble MEX)' 등 재활로봇 3기, 심폐재활 운동검사 장비 1대, 고압 산소치료기 1대, 정신건강 치료기기 2대 등이다.

ST1 기반 구급차는 넓은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 다양한 의료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운전석과 환자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워크스루 구조와 높



현대차그룹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왼쪽), 국립소방병원 광영호 병원장이 11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차량 및 재활장비' 기증식을 가졌다. /현대차그룹

은 실내고를 적용해 의료진의 활동성과 처치 편의성도 높였다.

엑스블 맥스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 랩이 자체 개발한 의료용 착용로봇이다. 하반신 마비 환자와 장애인의 보행을 보조해 재활 치료와 보행 훈련을 돕는다. 걷기와 서기,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좌우



현대차그룹이 국립소방병원에 기증한 ST1 기반 구급차.

회전 등 5개 동작을 지원한다.

착용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로봇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국립소방병원은 엑스블 맥스를 중심으로 별도의 로봇재활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치료를 위한 고압 산소치료기와 소방관들의 심리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 치료

기기도 함께 지원했다.

현대차그룹은 소방관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휴식을 돕는 '소방관 회복지원차' 10대를 전국 소방본부에 기증했다.

2024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팩에 구멍을 뚫어 물을 분사하는 관통형 화재 진압 장비 'EV 드릴 랜스'를 개발해 250대를 소방청에 전달했다. 올해에는 소방청과 공동 개발한 원격 화재 진압 장비 '무인소방로봇' 4대를 기부했다.

현대차그룹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부상을 입으신 소방관분들의 회복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현대백,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 후원금 2억 전달

현대백화점은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에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해비타트는 1994년부터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건축과 주거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 마라톤 '3.1런'과 '815런'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현재까지 총 23채의 신축 주택을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에 지원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해비타트 서울지회에서 진행된 독립유공자 후손 보금자리 지원 후원금 전달식에서 현대백화점 양명성 영업전략담당 상무(사진 왼쪽)와 마히자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이번 후원금에는 현대백화점 고객들이 기부한 H포인트도 포함됐다.

/김서현 기자 se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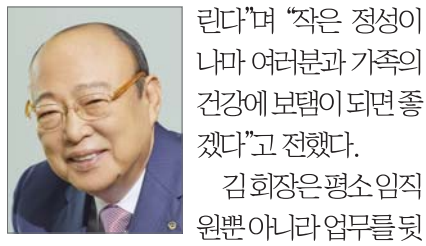
김승연 한화 회장, 임직원에게 보양식 선물

선물 비용 약 30억, 사재로 마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국내 임직원 6만9000여명에게 보양식을 선물한다. 무더위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서다. 약 30억원의 선물 비용은 김 회장이 사재로 마련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삼계탕과 갈비탕, 설렁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세트를 국내 임직원 전원의 자택으로 보낸다고 12일 밝혔다.

김 회장은 보양식과 함께 전달한 메시지에서 "끓임없는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



린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평소 임직원뿐 아니라 업무를 뒷받침하는 가족에게도 꾸준히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임직원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가족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경영 철학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는 매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임직원 자녀들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과 격려 편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선물과 편지를 받은 임직원 가족은 모두 8만여명에 달한다.

/원관희 기자 wkh@

인사 ◆재정경제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장정진

◆기획예산처 ◇과장급 전보 △국제재정협력과장 이준희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 내정 △전남경찰청장 고병석 △경상남도경찰청장 김종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고평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치안감 승진 내정 △경찰청(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박헌수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송유철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재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경찰관리관) 양영우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관악경찰서장 김광식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송병선 △경찰청(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iM증권(실장) ◇신규 보임 △전략운용실장 신호섭(부서장) ◇신규 보임 △부동산금융1부장 한지혜 △랩운용부장 김용범(직무대행)

부음 ▲최종범(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유제품연구소장, 수의사)씨 별세, 이재욱씨 남편상, 김현지(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 기자)씨 외조부상 =1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4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웅인비봉추모관. 02-2258-5922

오늘의 날씨

8월 13일 (목)

음력 : 7월 1일

수도권 날씨

23 ~ 3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백령도 23/29

파주 20/31

서울 23/33

양평 21/32

용인 23/33

평택 22/33

연천 20/32

동두천 21/32

가평 20/31

인천 23/32

수원 23/3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네이버, 프로야구 최초 NFT 티켓 도입

네이버가 NC 다이노스와 손잡고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Npay 월렛 기반 NFT 티켓을 도입한다. 네이버는 NC 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117구역 테이블석 196석을 '네이버존'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



스타벅스, 청년 아티스트 공연 기회 확대

스타벅스 코리아가 청년 아티스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별빛 라이브'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스타벅스는 오는 30일까지 만 19~39세 청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개 팀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전국 5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매주 공연을 진행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카카오, 뷰티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

카카오는 뷰티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비즈니스 사장님 커뮤니티'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장님 커뮤니티는 사업자가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를 배우고 자신의 매장에 직접 적용하는 소상공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카카오

CJ대한통운 이색 채용설명회 개최

CJ대한통운이 Z세대 맞춤형으로 최근 트렌드인 러닝과 게임을 결합한 차별화한 채용설명회를 시행한다.

CJ대한통운은 이달 28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 IP를 활용한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의 핵심은 Z세대가 열광하는 러닝과 20여 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게임 IP를 결합한 '미니 게임 챌린지'다.

/김승호 기자



기원원, 취약계층 농수산물 꾸러미 전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세종시 관내 취약계층의 식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농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원곡2번째부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종윤 경영전략실장,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김부유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기부

에이스침대, 산불피해 주민 주거회복 도와

제품 구입시 최대 50~90만원 지원

에이스침대가 지난해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침대 구매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1년간 110가구가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았다.

12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회복 캠페인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110가구가 침대를 구입하면서 총 1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에이스침대는 일회성 구호활동을 넘어

피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하는 과정에 함께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캠페인은 안동·영덕·청송·의성·영양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매트리스는 최대 50만원, 매트리스와 프레임 세트는 최대 90만원까지 제품 등급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 내 대리점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동화약품, 독립유공자 후손에 수익금 기부

대표 제품 수익금의 1%

동화약품이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에 동참했던 기업 역사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한다.

동화약품은 오는 24일까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광복절 기념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일상을 채우는

활(話)력'을 주제로 기획됐다. 해당 기간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가스활, 소다환 등 동화약품 대표 제품 수익금의 1%를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한다.

동화약품의 전신인 동화약방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정답 찾는 아이에서 생각 만드는 아이로



지 상 범 역

입시 토크

◆ 대입 개편은 단순한 시험 변경이 아닌 평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게 될 203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과 고교 내신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및 서술형, 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교육을 지배해 온 정량적 오지선다형 시험과 무한 경쟁의 상대평가 체제가 종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인공지능이 무한한 지식을 생성하는 시대에 정답 번호를 빠르게 골라내는 단순 암기 능력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주어진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언어로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깊이 있는 사고력이 새로운 학업 성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 채점의 신뢰도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고 육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는 주관성 개입에 따른 공정성 논란과 사고육비 증가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 해의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서술형 평가의 채점 신뢰도 실추는 제도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세부적인 분석적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보조 채점 기술과 전문 교사의 블라인드 평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가의 사고육 컨설팅이 유행하지 않도록 공공육 차원의 AI 글쓰기 피드백 플랫폼을 제공하여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초등 단계에서는 양적 선행보다 깊이 있는 논리적 서술력을 길러야 한다

입시 지형의 변화는 초등학교 교실과 가정의 학습 방식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제한다. 문제집을 수없이 풀며 진도만 나가는 정량적 선행학습은 서논술형 평가 체제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초등 저학년에는 읽은 내용을 말로 설명하

고 이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하기와 글쓰기 연계 훈련으로 문해력 기초를 다져야 한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예시를 갖추는 3단계 문단 작성 프레임워크를 체화해야 한다.

국어의 지문 요약과 비판적 글쓰기, 수학의 풀이 과정 역설명, 사회와 과학 현상의 인과관계 서술 등 교과별 과정 중심 학습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 공교육 중심의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미래형 인재가 완성된다

2033학년도 대입 개편은 정답을 찾아내는 기술자를 키우던 과거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대적 결단이다.

교육 당국은 일선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정성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가 단순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독서와 논리적 서술 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미래 인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주식시장은 실험장이 아니다



김지수점

신 하 은
(자본시장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규제 조치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인 데 이어 오는 19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르면 9월부터는 최소 거래 수량을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도한 거래를 막고 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시장에 등장했다. 출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종목에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에 거래가 몰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거래가 과열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결국 잇따른 보완책을 내놓았다. 시장에 상

품을 선보인 뒤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된 셈이다.

규제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자 뒤늦게 규제를 댄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상품은 한번 시장에 출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이 투자자의 손익에 확대·반영되는 만큼 출시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영향에 대한 검토가 더욱 촘촘해야 한다. 시장을 먼저 열아놓고 문제가 드러난 뒤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은 사전적인 위험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급감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약 387억달러(약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떠나는 부담도 적지 않

다. 일례로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려면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와 주문 시스템 등을 다시 손봐야 한다. 우선 잡혀 있던 전산 개발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정책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규제가 금융회사에는 또 다른 비용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물론 증시 변동성을 레버리지 ETF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다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도입한 뒤 뒤늦게 거래 문턱을 높이는 현재의 과정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을 충분히 따져본 뒤 제도를 설계했다는 중요한 질문이다.

주식시장은 정책의 시행착오를 시험하는 실험장이 아니다. 시장을 여는 속도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 시장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다.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된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그 비용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godh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3일 (음 7월 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다른 것을 취하려 마세요. 60년생 어려운 일일수록 느긋하게 대처하세요. 72년생 임자가 있다면 단념하는게 좋습니다. 84년생 성실하게 대처하면 소득이 따릅니다.



소

49년생 갈길은 멀고 여유는 없으니 답답합니다. 61년생 바쁠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73년생 지나친 과욕은 주위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85년생 주위의 관심을 받게되는 하루입니다.



로랑이

50년생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62년생 자신감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74년생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의욕있게 추진하세요. 86년생 주위의 칭찬을 들을 일이 많습니다.



도끼

51년생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이 필요합니다. 63년생 장기적인 관망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점진적으로 도약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도 따라옵니다.



조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뱀

53년생 이득보다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신중하게 판단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77년생 남에게 도움을 주는 하루입니다. 89년생 받기보다는 베푸는게 좋습니다.



말

54년생 얹지른 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66년생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78년생 상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0년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게 좋습니다.



양

55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승부가 필요합니다. 67년생 행동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는게 먼저입니다. 79년생 밝고 따뜻한 색과 함께 하면 행운이 있습니다. 91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원숭이

56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68년생 고집보다는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80년생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일을 그리칠 수 있습니다. 92년생 과한 자신감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닭

57년생 친한 사람을 만나다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세요. 69년생 뒷사람의 말을 반드시 잘 새기세요. 81년생 큰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금전운이 좋으나 방심하지 마세요.



개

58년생 노력을 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70년생 욕심이 힘들지만 친구가 찾아옵니다. 82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겨 진행하세요. 94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돼지

59년생 고민은 많으나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71년생 지금보다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83년생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95년생 옛 친구에게 연락하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의치증 의부증

강남 대치동에 사는 K여인은 남편이 경제력도 상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반열에 속하는데 자살하기까지 하다. 부부동반 모임에 나가면 다른 부인들이 K 부인을 한결같이 부러워한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 타면서부터 부인은 피가 마른다. 말 한마디 없이 싸해지는 남편이 동석한 다른 부부의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웃은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갖다 붙이며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혼을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무엇보다 이혼해줄 남자도 아니기에 울며 참는다. 부부가 살다 보면 때때로 배우자의 바람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 대부분은 흘러가는 단순 의심일 경우지만 때때로는 가정이 파탄 날만큼 심대한 해로운 일이 된다. 팔자로 볼 때 문제가 될 정도의 의치증이나 의부증은 '의치의부살(疑妻疑夫殺)'이라고 명명할 만큼 공연히 아내 혹은 남편을 의심하게 만드는 흉살이다.

현대 의학에서는 의치증, 의부증을 부정망상(不眞妄想)이라고 하여 배우자 상대방의 정조(貞操)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로 밝히고 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망상(不眞妄想)은 의심하는 자의 과거 행실에 기인하여 그 비슷한 징후를 보게 되면 의심이 발동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배우자가 자신에게 불충실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 배우자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괴롭히고 자신도 괴로워한다. 부정망상의 정신병리학적 병으로 보는 것이다. 의학적인 판단과 사주학 관점에서 의부 의치증은 조금 그 판단의 결이 다를 수 있다. 의치의부살(疑妻疑夫殺)은 보통은 태어난 일주(日柱)를 기준으로 편관과 편인이 함께 하게 되면 발동하는데, 의치의부살(疑妻疑夫殺)은 마음 바귀 먹는다고 나야 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가는 경향성이라 평생 의심을 담고 사느라 양방 모두 보통 고통스럽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3	9	5
4		5		7
		7	6	
	5			
		2	3	9
			7	
2	1	3		
8	9	7	6	2

	7	1	4	8
2				
	8	4		9
2		3		
1	3			2
4		9	1	
	8	3	5	6

1	2	9	9	7	6	8	8
9	8	8	9	1	6	7	2
6	2	7	8	2	8	1	9
8	9	2	1	8	9	2	6
7	9	1	6	8	2	8	9
8	6	2	7	2	9	9	1
2	1	9	2	6	7	8	9
2	8	8	2	9	1	9	6
9	7	6	8	9	8	2	1

1	7	9	2	9	2	8	6
2	9	6	8	8	7	2	1
2	8	1	9	6	9	2	7
9	6	8	9	2	1	8	7
7	2	1	8	6	9	9	8
8	9	1	2	7	8	6	9
6	2	2	7	8	1	9	9
8	1	9	6	2	9	7	8
9	8	7	9	1	2	2	6



우즈베크 노동행정예
국내 시 입한다
디지털 협력 확대
나



Life

롯데
롯데렌탈 지분
1.3조 매각
L4



씻겨 나가던 영양·볼륨 잡았다 모발에 피어난 ‘바다의 생명력’

모발이 바닥으로 처지듯 뻗었던 헤어케어 시장에, 중력을 거스르는 가벼운 반란이 시작됐다. 카이스트 교원 창업으로 탄생한 스타트업 폴리페놀팩토리가 만든 기능성 헤어 관리 브랜드 ‘그래비티’가 그 주인공이다. 자연 유래 폴리페놀 연구에서 출발해 세계 최초의 바이오 혁신 제품을 연속해서 터뜨리고 있는 폴리페놀 팩토리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소비자의 마음을 거부할 수 없는 인력(引力)처럼 끌어당기고 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폴리페놀팩토리 ‘그래비티’

◆판매량으로 입증하는 강력한 ‘끌림’

그래비티는 2024년 4월 국내에서 첫 출시된 후 2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70만 병을 돌파했다. 270만 병은 샴푸 병을 세워 쌓을 경우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555m)를 약 876개나 쌓아 올릴 수 있는 양이다. 26초마다 1병씩 하루도 쉬지 않고 팔려 나간 셈이다. 실구매 후기만 14만 2000건에 달하며 8분마다 1건이 발생한 수치다.

2024년 첫 브랜드 공개 당시 109시간 만에 초도 물량 완판, 국내 유명 멀티브랜드숍(MBS) 올리브영 온라인 입점 39분 만에 완판, 롯데홈쇼핑 대표 프로그램 최유라쇼 방송 40분 만에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록들은 그래비티가 거둔 메가히트의 상징적 장면들이다.

카이스트 스타트업 폴리페놀팩토리 2024년, 기능성 헤어 브랜드 선배 융합 접착원리 응용한 원천기술 보유 출시 27개월 만에 누적 270만병 판매

◆모발에 닿는 순간 ‘가벼운 리프팅’

2023년 8월 설립된 폴리페놀팩토리의 기술적 뿌리는 세계적인 생체공학자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의 연구실에 닿아 있다. 2007년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 사이언스 등에 각각 융합 접착력 발견 및 폴리페놀 코팅기술 논문을 발표했다. 누적 피인용 1만 회 이상의 세계 상위 1% 고인용

연구자’로 꼽히는 이 교수는 식물이 젖은 환경에서도 단백질과 결합하는 폴리페놀의 성질에 주목했다.

기존 샴푸의 가장 큰 숙제는 물로 행구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허무하게 유실된다는 점이었다. 연구진은 파도치는 바위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융합의 원리를 응용해 원천 기술 ‘리프트맥스308’을 완성했다. 접착력이 뛰어난 폴리페놀 복합체가 모발 단백질인 케라틴과 강하게 결합해 행굼 후에도 두피·모발에 잔류한다.

또 유효 성분이 점진적으로 방출되는 ‘저장 방출 효과’를 내는 원리로 작용한다. 모발을 무겁게 덮는 방식 대신 표면에 가볍게 머물며 볼륨감을 살려주는 가벼운 볼륨 경험을 구현해 냈다.

◆세계 첫 해양 미세조류 ‘비건 PDRN’

폴리페놀팩토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바이오 기술로 시장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세계 최초로 샴푸 제형에 해양 미세조류 유래 ‘비건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을 처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PDRN은 상처 치유와 세포 재생을 돕는 고기능성 성분이지만 수용성 성질 탓에 샴푸에 넣으면 씻겨 나가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코아세르베이트’ 제형은 폴리페놀이 PDRN을 감싸주는 전달체 역할을 한다. 행굼 후에도 두피 표면과 모공, 모발에 유효 성분이 고스란히 남도록 설계됐다.

제주 바다의 미세조류를 순수 배양해 얻은 해양 PDRN은 흡광도 1.97이라는 고순도를 갖췄다. 상처 치유 촉진 능력 또한 기존 연어 유래 PDRN 대비 약 60%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이 집약된 ‘그



래비티 헤어 리커버리 PDRN 샴푸’는 발매 3일 만에 초도 물량이 전량 소진됐다. 이어진 홈쇼핑 방송에서는 2만 6000명이 판매되며 분당 최고 주문액 1686만원을 올렸다. 구매자 절반 이상이 30대 전후로 두피 건강에 민감한 젊은 층이 바이오 기술력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초 샴푸에 비건 PDRN 처방 특수 제형으로 행굼 후에도 영양 지속 여름철 두피쿨링 ‘쿨 프레쉬’ 신제품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글로벌 진출 과학기술로 ‘일상의 혁신’ 만들 것

◆폭염 한정판 ‘엑스트라 쿨 프레쉬’

270만병 판매 돌파를 기념해 폴리페놀팩토리가 새롭게 선보인 제품은 ‘헤어리프팅

샴푸 엑스트라 쿨 프레쉬’다. 여름철 폭염 속 두피 쿨링과 볼륨 유지에 중점을 뒀다. 기존 대표 제품의 검증된 탈모 증상 완화 포물리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멘톨 배합과 독자 기술인 ‘더블 수딩 포물러(알로에베라+ 시카 줄기세포)’를 더했다.

임상시험 결과, 35℃ 이상인 한여름 날씨 환경에서 세정 직후 두피 온도가 5.05℃ 낮아지는 즉각적 냉각 효과, 두피 진정 개선 16.91%, 뿌리 볼륨 개선 37.24% 등이 입증됐다.

◆일상을 바꾸는 바이오 해법을 향해

글로벌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5’와 ‘CES 2026’에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 산업계의 시선을 모은 폴리페놀팩토리는, 미국 아마존, 일본 라쿠텐, 대만 모모홈쇼핑을 거쳐 프랑스 뿌렐랑 백화점 등 해외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폴리페놀팩토리 관계자는 “PDRN 샴푸의 열풍에 힘입어 올해 총매출 4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첨단 연구가 단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가 매일 머리를 감는 순간마다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력을 거스르는 볼륨감을 이뤘던 독보적 과학 기술로 K뷰티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폴리페놀팩토리와 그래비티가 제시할 바이오 헤어케어의 새로운 표준에 기대가 모인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가운데)와 폴리페놀팩토리 연구진들.



프랑스 뿌렐랑백화점 K-뷰티관에서 판매중인 그래비티 샴푸. /폴리페놀팩토리



▲전북 ‘18세’ 김예건, K리그 역대 최연소 ‘이달의 골’ 수상
▲무엇이든 120% “...이강인 포지션 어디면 좋을까요?”
/사진 뉴시스

▲문정균 KBOP 대표이사,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박지현, 피닉스전 5득점에도...LA 2연패

▲체육공단, 적극행정 혁신위원회 개최...우수 사례 11건 선정
▲‘교황 응원 팀’ MLB 화이트삭스, 관중들에 주교관 모자 선물

SAMSUNG

The all-new
Galaxy Z Fold8 Ultra | Fold8 | Flip8
Galaxy AI



samsung.com

아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좌측부터 갤럭시 Z 폴드8,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입니다.
특정 시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계정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